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여성시대

양희은 . 강석우입니다

이달의 편지
손 편지의 힘 외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딸이 준 고귀한 선물

2015 May **05**





기간 2015. 4. 1(수) ~ 5. 31(일)
발표 2015. 6. 12(금), IBK기업은행 홈페이지 게시

Event 1 IBK ONE뱅킹 최초 이용하시고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 가세요!

응모방법 ONE뱅킹(개인) 앱 내 전체메뉴 → 이벤트 → 이벤트 소식 → '꽃보다 IBK ONE! 가족사랑 꽃이벤트' 선택 → '응모하기' 선택 → 성명, 핸드폰번호 입력

1등 국민관광상품권(100만원 상당) <1명>

* 국민관광상품권은 차액40% 2% 고객 본인 부담

*** IBK ONE뱅킹 최초 이용이랑!**
이벤트 기간 내 IBK ONE뱅킹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최초로 서비스 이용 (계좌조회 등)

백스킨라빈스싱글링 마이스크림 <1,200명>

Event 2 ONE뱅킹에서 상품 가입하시고 치즈케익 드세요!

응모방법 ONE뱅킹(개인) 앱 내 전체메뉴 → 이벤트 → 이벤트 소식 → '꽃보다 IBK ONE! 가족사랑 꽃이벤트' 선택 → '응모하기' 선택 → 성명, 핸드폰번호 입력 및 '정답' 선택

파리바게트 치즈가 부득른 시간 <50명>

* 이벤트 기간 내 상품 가입하신 고객 대상 선착순행위

***ONE뱅킹에서 상품 가입하는 방법안내**
ONE뱅킹(개인) 앱 내 전체메뉴 → ONE금융센터 바로가기

Event 3 틀린 그림 찾아서 정답 맞추고 커피 마셔요!

응모방법 ONE뱅킹(개인) 앱 내 전체메뉴 → 이벤트 → 이벤트 소식 → '꽃보다 IBK ONE! 가족사랑 꽃이벤트' 선택 → '응모하기' 선택 → 성명, 핸드폰번호 입력 및 '정답' 선택

Q. 두 그림 중 틀린곳은 몇개일까요?보기 중 정답을 골라주세요.

A. ①5개 ②4개 ③3개 ④2개 ⑤1개

카페베네 아메리카노 <50명>

NOTICE!
본 이벤트 기간, 내용 및 경품은 사전 고지 없이 당행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지 될 수 있습니다. **교환일이 지난 기프티콘에 대해서는 재발송되지 않으며, 당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IBK ONE 서비스 이용시 필수 가입하신 요금제에 따라 통화요금 부과 할 수 있습니다. (당행 앱, 모바일 앱, PC, 인터넷 뱅킹, 30일 이내 정통 미수행 또는 정통할 위험도(원도)로 전화 주소등의 경우 사전 통보 없이 당행이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중복 당첨시 최상위 경품으로 1회 지급합니다. 기존 IBK ONE 서비스 및 금융상품의 탈퇴 후 재가입, 어플리케이션 삭제 후 재설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간내에 상품 가입하여 이벤트 종료기간까지 유지한 고객에 한합니다. 이벤트 경품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탈락 및 추첨될 수 있으며, 상품 발송 미이행시 다음 수 있습니다. 기타 이벤트 상세내용 및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EK 고객센터(1566-2566/1588-2588)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5-564호 (2015.03.11) [제시기간 : 2015.06.30]
* 기타 이벤트 및 가맹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EK 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EK 기업은행의 분쟁해리기내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 : 국민은행 ☎1302, 케이뱅크 ☎080-600-0199, 케이뱅크 ☎080-600-0199, 케이뱅크 ☎080-600-0199) IBK기업은행은 금융·행위를 받지 않습니다. * 권리행방 위한사실상대 제1차 필요한 경우 신고서 제출(☎02-72-7630, e-mail : ibknews@ibk.com)



contents 2015년 5월호



04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1
딸이 준 고귀한 선물



10 이달의 편지
손 편지의 힘 외



70 행복을 찾는 사람들
(주)그리에이트 이승수 대표

77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2
사과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82 코너 속 편지
부익금 어떡해야 할까요? 외

104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
대형마트 나들이 유감

108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꽃그는 아래에서

110 강석우의 스튜디오에서
어머니 잘 계시지요?

112 행복한 책 읽기
《생각의 융합》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15년 5월 10일 발행인 (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안광환
등록번호 라-5413 진행 양희은, 강석우 프로듀서 이한재, 서미란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59 주소 (121-904)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최승미 월간지(비매출)
※ 본지는 한국도서윤리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 전국 각 지역은 위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91.3 전주 101.7/94.3 마산 98.9 춘천 92.3/88.9
청주 107.1 제주 97.9(견일악)/97.1(삼대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92.7 충주 96.1 삼척 101.5/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딸이 준 고귀한 선물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의 김윤희 씨 부녀를 찾아서

글 | 성기애 (여성시대 작가) 사진 | 송인혁

긴 밤이었다. 살면서 그렇게 길고 긴 밤을 맞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다. 3월의 끝자락 부녀는 밤새 한잠도 이룰 수가 없었다.

아빠 김윤희 씨는 어린 딸에게서 간을 이식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다. 딸바보로 살았던 아빠는 딸의 몸에 남게 될 흉터를 먼저 생각하며 뜬눈으로 그 밤을 지냈다.

이제 갓 스무 살이 된 딸 헤민 양은 수술이라는 공포감에 어서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으면 싶었다. 아무리 참으려고 애를 써도 자꾸만 눈물이 짙끔짙끔 흘렀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남편과 딸의 병실을 오가며 두 사람을 안심시키는 아내이자 엄마인 허철호 씨는 남몰래 눈물로 그 밤을 짝 채웠다.

수술 날 아침, 아빠가 수술실로 향할 때 딸은 아빠의 두 손을 잡고 “아빠, 수술 잘하고 와, 내 걱정하지 말고.” 당부에 당부를 거듭했다. 곧이어 딸이 수술실로 들어가고, 7시간의 수술 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말을 들은 엄마는 그 자리에 폴짝 주저앉고 말았





다. 속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감사인지는 모르지만 그 말 밖에 생각나지 않았다.

김윤희 씨가 간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안 건 스무 살 무렵이었다. 비활동성 B형 간염 보균자로 일상생활에는 별 이상이 없었다. 같은 동네 처녀와 결혼을 하고 아들 딸 낳고 잘살고 있었는데 2002년 정기 건강검진 결과 간경화 초기 진단을 받았다. 그때부터 3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고 약도 먹고 운동도 하며 꾸준히 건강을 관리했다.

그런데 지난 2월 급작스럽게 간암 판정을 받았다. 그렇게 관리를 했건만 간암이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간에 3.5cm의 종양이 발견되었는데 방치할 경우 급속도로 퍼질 수 있으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다니던 병원에서 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서

울의 대학병원에 가니 종양만 제거하면 다시 발병할 가능성이 높으니 간이식을 하는 게 좋겠다는 소견을 들었다. 그것도 하루가 급하니 빨리 간이식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어디서 누구에게 간이식을 받아야 하나 고민을 하는데, 스물네 살 아들이 먼저 나섰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할게요.” 그 아들을 앞세우고 병원에 갔으나 아들은 어려서 심장수술을 받았던 지라 간이식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젠 방법이 없겠다 싶어 공여자를 기다리기로 했는데 이번엔 딸이 나섰다.

망설이는 아빠를 보며 딸은 울면서 말했다. “아빠가 죽으면 나는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할게. 괜찮아. 나 하나도 안 무서워.” 부녀는 부둥켜안고 울었다. 다행히 딸은 모든 조건이 맞아 이식수술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딸은 자신의 간 70%를 아빠에게 이식했다.

딸이 유치원에 다닐 무렵 아내가 직장 일을 시작해 딸을 보살피는



일은 아빠인 김윤희 씨 전담이었다. 주야교대 근무하는 전력회사에 다니는 아빠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았다. 비번인 날 아내가 출근을 하면 딸을 깨워 세수를 시키고 머리를 빗겨 밥을 먹고 유치원에 데려다주었다. 유치원 재롱잔치나 부모님 참관 수업에 늘 아빠가 따라다녔다. 딸이 초등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였다. 딸과 아빠는 언제나 함께였다. 맛난 길 먹을 때도, 여행을 갈 때도 늘 함께인 가족이다. 거리에 나설 때 부녀는 늘 손을 잡고 다니고 지금도 입에 뽀뽀를 할 만큼 친근하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 부녀를 유난스럽다고 한다.

수술을 받고 딸은 3일 만에 아빠는 1주일 만에 퇴원을 했다. 다행히 수술도 성공적으로 잘됐고 수술부위도 잘 아물고 있다.

여성시대가 김윤희 씨 댁을 찾았을 때 현관 앞에 딸이 손으로 쓴 글씨가 먼저 반겼다. <손소독 한뒤, 마스크 쓰고 들어오기> 아빠를 끔찍이 생각하는 마음이 그 글씨에 다정하게 담겨있었다. 손세정제에 손을 소독하고 집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감염이 우려돼 아직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김윤희 씨는 활기차 보였다. 딸 헤민 양도 밝은 웃음으로 맞아주었다.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딸은 딱 2주 학교를 가고 수술 때문에 학교

를 가지 못했다. 이제 5월이면 학교에 나갈 예정이다. 아빠는 한시라도 빨리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웃음치료를 혼자 독학 중이다.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한 심분 웃음을 터트리고 혼자 산책을 하면서도, 저녁을 먹고도 혼자 박장대소를 한다. 그러면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아내가 덩달아 따라 웃고, 그 모습에 딸도 추임새처럼 웃음을 슬그머니 던져 넣는다.

딸은 고등학교 때부터 메이크업에 관심을 보이며 학원을 다녔고 이미 여러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대회마다 따라나섰던 것도 역시 아빠였다. 큰 대회에서 굵직한 상을 받았고, 더 공부를 해서 대학교수가 되는 게 꿈이다. 지금도 온 가족의 얼굴 마사지를 전담하고 있는 딸이다.

산책에 나선 부녀는 손을 꼭 잡고 봄바람 속을 걸었다.

“아빠, 나 결혼하면 2층집 지어서 살 거야. 그러면 아래 층은 엄마 아빠가 살고 위층은 내가 살게. 알았지?”

“응, 그러자.”

딸과 함께할 멋진 제2의 인생을 생각하며 딸바보 아빠는 딸의 손을 힘차게 잡는다.





편지란 참 신기한 전달 수단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을 편지만큼 잘 담아내는 그릇은 없을 겁니다. 요즘은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대체통신 수단이 발달하며 편지를 직접 써서 전달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우편물의 양이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라지만 그래도 한 해 42억 통의 우편물이 강원도에서 마라도까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발로 뛰는 집배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우편물 100통 중 한 통 정도가 손 편지라고 하네요.

여성시대 우체통에 도착하는 편지도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손 편지의 비중이 많이 줄어든 셈입니다. 그래도 꾸준히 손으로 꼭꼭 눌러 쓴 '완전 수제품' 손 편지가 도착하고 있는 걸 보면 반갑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편지는 대개 일대일의 소통이라고 하지만 여성시대에 도착하는 편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 간의 교감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매개체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듯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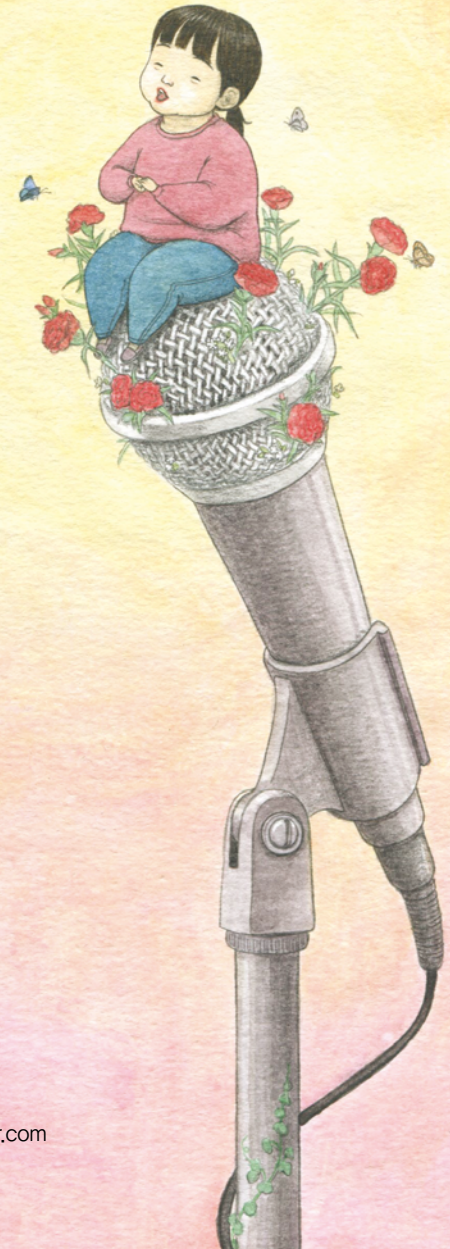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날, 스승의날, 부부의 날이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연이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름 달린 날이 많은 5월, 선물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 자 한 자 진솔한 마음을 담은 편지 한통 써 보십시오.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선물이 될 겁니다.

5월이 가기 전 누군가에게 꼭 편지 한 장 써주세요.

물론 여성시대에도 보내주시고요.

이달의

편지



- 12 손 편지의 힘
- 15 남편에게 주는 장기 포상휴가
- 19 부모에게 '당신들이라니'
- 23 전세 입주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 27 친구가 사부인이 되다
- 30 떠나지 못한 사람들
- 34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
- 39 이걸 대박 꿈일 거야
- 42 맘, 안농라시여!
- 45 나의 재혼 이야기
- 48 인생의 봄을 향해
- 52 태백이 한라를 만나다
- 57 즐거운 캠핑을 위하여
- 62 동네 빵집, 문 닫습니다

Letter 1

손 편지의
힘

박영선 |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2로

저는 전교생이 기숙사생활을 하는 거제공업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새 학기가 되면 ‘이번 학기 수행평가로 뭘 하지?’라는 고민을 합니다. 올해는 취업을 앞둔 3학년들을 지도하게 되어 수행하기 어려운 평가가 아닌, 수행해서 기분 좋은 일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름하여 ‘손 편지 답장받기!’

“선생님, 그냥 문자로 받으면 안 되나요?”

“저는 편지 한 번도 안 보내 봤는데요?”

“근데 선생님! 답장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예상 못했던 바는 아니지만 제가 칠판에 <손 편지 답장받기>를 적는 순간 여기저기서 불멘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5월까지 하는 수행평가입니다.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학생생활을 마감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이 시기

에 부모님께 드릴 말씀도, 약속드리고자 하는 바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손 편지 한 장이 서먹한 관계를 녹일 수도 있고, 자칫 해이해진 마음을 다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손 편지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 엄마는 답장 안 해주실 텐데요.”

“한 사람이 여러 통의 편지를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선생님한테는 받는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편지봉투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것이 수행평가 결과물입니다.”

“꼭 부모님이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은사님도 좋고, 친구도 좋습니다. 군인에게 보내는 위문편지도 좋습니다. 단, 답장이 오지 않으면 수행평가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아이들 중에는 “난 행운의 편지를 보내야겠다. <이 편지를 받으신 분은 일곱 통의 편지를 써서 보내야만 합니다...>” 이라는 녀석도 있고, 친구끼리 상부상조하자며 악수를 하는 녀석들도 있고, <며칠 후의 나에게>라며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는 녀석도 있고, 우표는 어디에 붙이는 거냐며 야단인 녀석도 있었습니다. 저는 손 편지를 단 한번도 써 본 적이 없는 학생이 많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뽀뽀뽀 편지를 써 내려가는 모습이 참으로 귀여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첫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것도 2,230원짜리 등기로요. 학교 이름이 적힌 편지봉투로 보내면 사고 친 줄 알 거라고 하면서도 거기다 엄마한테 편지를 보낸 학생이 있었답니다. 아들의 편지를 받은 엄마가 세 장의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셨더군요. 얼마나 하고픈 말들이 많으셨을까요. 저는 편지는 학생에게 주고 편지봉투만 받았습시다.



저는 손 편지의 힘을 믿습니다. 실제로 해결 안 되던 일이 솔직함을 담은 편지 한 통을 통해 풀린 적도 있었고, 옷 한 벌도 못 팔아 미안한 마음에 적은 편지 덕분에 아르바이트 사장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엄마가 쓴 쪽지는 지금도 제 지갑 속에 있습니다.

〈우리 딸, 눈에 속 들어오는 옷이 있어 엄마가 보낸다. 처음은 드라이클리닝 하는 거래. 엄마가.〉

저는 객지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엄마하고 살가운 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온 택배 속에 든 쪽지를 보고 자꾸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옷이 작아서 그 옷은 지금까지 옷장 안에만 있지만, 엄마가 자꾸 “입으니 예쁘더냐?”라고 물어보시기에 “응, 진짜 예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일로 엄마하고 사이가 돈독해졌지요. 여성시대를 듣고 계신 선생님들께 제안해 봅니다. 이번 학기 수행평가로 <손 편지 답장받기> 어떠세요?

Letter 2

남편에게 주는
장기 포상휴가

김순애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지난 주말, 친하게 지내는 언니, 동생과 함께 봄을 맞아 부산으로 1박 2일 여행을 갑작스럽게 다녀왔습니다. 25년 만에 부산행이니 신나게 놀고 여행의 피곤함도 잊고 월요일에 출근했습니다. 퇴근하여 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퇴근한 남편이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않고 저 보고 나오라고 합니다. 문득 예상했던 불안한 직감이 설마 맞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옷을 챙겨 입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 4월까지만 근무하기로 회사에 얘기했어”라고 하는데, 순간 어떤 말을 해야 하나 막막하더군요. 왜 진작 얘기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금요일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부산 여행 간다고 들떠 있기에 말을 못하고 다녀오면 말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20년 넘게 한결같이 출근했던 직장을 그만둔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장’이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없었기에, 수많은 날들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남편이 반았을 고통이 미루어 짐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다니면 안 되느냐. 조금만 더 참지 그랬느냐, 나가라고 할 때까지 다니는 거지 무슨 배짱이냐’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영업직에 있다 보니 술 먹고 들어오는 날도 많지만 아침이면 어김없이 자명종시계 울림을 듣고 기계적으로 일어나서 출근하는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남편은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깨면 좀처럼 잠을 잊지 못하고 뜯눈으로 서성였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보니 한번 잠들면 누가 업어 가도 모를 만큼 깊게 자는 제 자신이 미웠고 미안했습니다. 또 그동안 간간이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할 때면 “애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참아줘, 여보.” 반협박성 멘트를 너무 쉽게 날려버린 것도 후회가 됐고요. 또 “여보! 당신만 그런 줄 알아? 50대 남자들은 다 그렇게 힘겹게 회사 다니는데. 다들 참으면서 다니는 거니까, 당신도 참아봐.” 너무 쉽게 판단해서 얘기해버린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회사를 그만둔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다들 입을 모아 “아 내한테 말했어?”라고 한답니다. 남편도 무거운 돌이 가슴을 누르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나니 속이 너무 후련하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회사 그만두면 잠을 10시간 정도 폭 자보는 게 소원이고, 150킬로미터가 넘는 서울 둘레길을 2주에 걸쳐서 걸어보고 싶고, 그렇게 몇 개월은 쉬고 싶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고 쿨하게 이야기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거리들로 복잡했습니다.



“당신이 퇴사했으니까 건강보험은 이제 내 앞으로 해야겠네...” 이렇게 말하고 보니, 갑자기 제가 가장이 된 듯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가장이 되는 거겠지요. 전 이제 아무리 치사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일이 있어도 당분간은 일을 그만두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아... 가장의 무게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동안 고생했어. 정말 성실하게 잘 다녀줬어” 이렇게 말해줄 수는 있는데 “이젠 직장 그만 다녀도 돼!”라고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애들이 대학 졸업도 하기 전이고, 결혼도 시켜야 하고, 우리 노후도 준비해야 하고...

아빠의 퇴사 소식에 큰애는 2학기 등록금은 아르바이트해서 준비하겠다고 하고 작은애는 “아빠 이젠 쉬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

리면서 큰애는 저 보고 “엄마, 한숨 쉬지도 말고 아빠 눈치도 주지 마!” 이립니다. 정작 전 아무런 눈치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엄마인 내가 기운 없이 누워 있는 것도 아빠의 말에 바로 대꾸 안하는 것도 무언의 눈치라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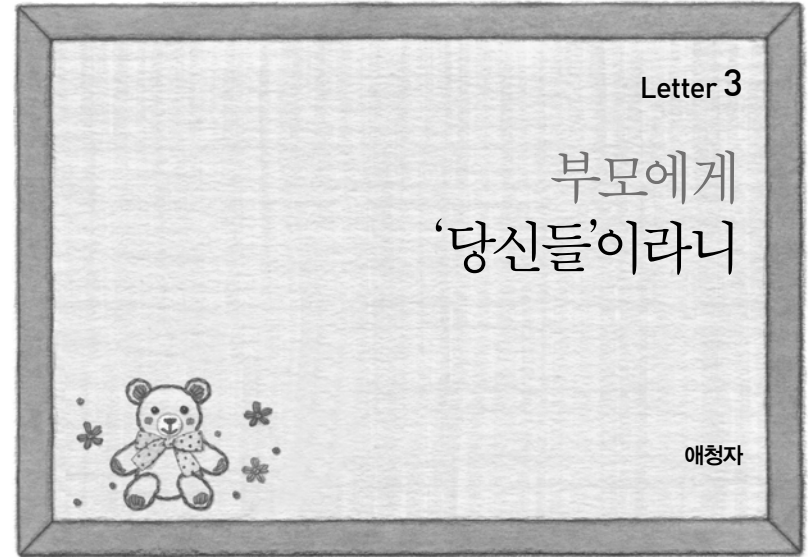
남편이 제게 “나, 얼마만큼 쉬면 좋겠어?”라고 물기에 저는 “실업 급여 탈 동안은 괜찮을 것 같아!” 이랬다가 “아니야, 석 달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라고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뉴스에서 나오는 실직자, 실업률을 남의 얘기로만 생각했는데 이젠 저희 집에 코앞에 닥친 현실이 되나 봅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남편은 지금까지 받았던 월급의 절반 정도밖에 못 받는 직장에 들어가게 될지 모른다고 말을 하네요. 그런 남편에게 힘이 되어 주는 말을 하고 싶는데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한숨이 전해지지 않길 바라고, 온몸의 기운이 빠져서 휘청거리는 내 남편에게 기운 내라는 말도 전하고 싶습니다.

순간순간 울컥해지는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한 직장에서 보낸 내 남편의 청춘의 흔적이 갑작스러운 퇴사 결정으로 서글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직장인 우리 행복 울타리 가정이 있으니까요.

“여보! 그동안 한 시간 가량 걸리는 회사 다니느라 고생 많았어요. 몇 개월 쉬다고 했지? 그 몇 개월은 20년 넘게 다닌 장기 포상휴가라고 생각하길 바래. 물론 휴가비는 내가 넉넉히 준비할게. 기운 내요. 사랑합니다.”

* 추신. 언젠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정말 맘껏 하고 싶은 거 하라고 4년 전부터 10만 원씩 적금 들었어요. 저는 남편이 한 57세 쯤 퇴직할 줄 알고 천만 원 정도 모아서 포상휴가비로 주려고 했는데 너무 일찍 당겨져서 4백만 원이 조금 넘네요. 이 적금 꺼서 즐깁니다.



사 랑하는 딸아!
네가 돈 한 푼 없이 미국이 감히 어디라고 거기까지 가서 온갖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과 힘든 일을 해가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신랑도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고맙고 자랑스럽기만 하다. 나는 너의 그런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으스스대며 참 행복했다.

네가 알다시피 환갑이 훨씬 넘은 나이인데도 네 엄마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아버지는 빌딩 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별로 넉넉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 마흔 살이 다 되어가는 네 오빠는 보험설계사 일을 하며 실적이 좋지 않아 아직 장가도 못 가고 15평 작은 연립주택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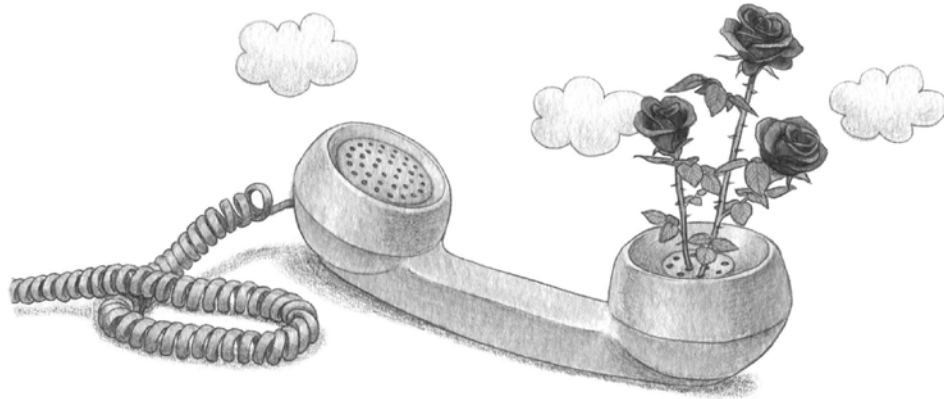
그런데 얼마 전, 네 소유의 아파트 전세금을 오천만 원 올려 받게

되어 그 중에서 천만 원을 우리가 좀 쓰려고 했었지. 생애 처음 자기 집을 가져보자고 이 연립주택을 사면서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삼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은행 이자가 늘 부담스러웠는데 마침 네 소유의 아파트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오천만 원이나 오르니까 그 중 천만 원을 은행 빚 갚는 데 썼으면 싶은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 이자도 좀 줄어들고 앞으로 원금 갚기가 수월할 것 같아 그랬다.

네 소유의 아파트는 지난 8년간 네 엄마가 전세 관리하느라 신경을 많이 썼단다. 그래서 엄마가 너에게 거짓말을 좀 했던 거지. “이번 4월 중으로 천만 원을 은행에 갚아야 한다”고. 그런데 네가 은행에 직접 알아보니 지금 갚아야 하는 대출 조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다. 그래서 너는 부모에게 온갖 아픈 말을 여과 없이 쏟아놓았는데, 참으로 서운하고 당황스럽기 짝이 없다. 부모에게 “당신들”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나를 이용만 해먹으려고 한다”고 했던 너의 말은 우리에게 가시가 되어 박혔다. 돈이 뭐라고, 날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당신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막말을 할 수가 있나 싶다. “돈을 뺏어내려고 온갖 죽는 소리를 다 한다”는 말은 자식으로 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내게 휴대폰 메시지로 ‘결혼할 때 단돈 10원도 보태준 게 없다’고 했는데 그 말 맞는 말이다. 형편이 안 되어 네가 미국에서 결혼식을 할 때 염치없게도 비행기 표까지 네가 사서 보내줘야 했지. 네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우리는 부끄럽고 미안했다. 이걸 네가 믿지 않는다고 해도 진실이다.

그리고 네 소유 아파트 전세금 중에서 복비 외에 오십만 원이 더 들어간다고 하니까 너는 그것도 믿을 수 없다고 했지. 십년 가까이 된 아파트라 바닥이 많이 손상되어 바닥을 깔아줘야 하는 비용이란다.



돈 천만 원 때문에 부모의 모든 말을 믿지 않기로 하고 이제 마음을 단단했다고 했는데, 참 기막히고 슬프다.

그리고 너는 “오빠 돈 삼천만 원이 있는데 왜 내 돈만 탐내느냐”고 했지? 너도 알다시피 네 오빠의 수입이 그럴 형편이 아니란다. 사실 이 다 됐는데 장가도 가야 하고, 월세방이라도 얻어야 하지 않겠니?

아버지가 젊어서 사업한답시고 집안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누굴 탓하겠니. 그래도 나는 너희들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키웠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남들 다 하는 피아노, 미술, 컴퓨터, 태권도 학원까지 다 보내주려고 했고, 그렇게 했다.

그런데도 너는 부모에게 말하길 “당신들한테 도움받은 게 없다”고 하는구나. 혼자 미국 가서 별 고생 다하며 좋은 대학 나온 네가 너무나 자랑스러워 난 동네방네 자랑을 했었다. 네 말대로 돈 한 푼 보내주지도 않은 주제에 그런 행복을 맛본 게 이제 와서 보니 부끄럽고 민망할 뿐이구나.

또 고백하건데 생활하는 게 넉넉하지 않다보니 네가 상당한 부자 신랑을 만나 결혼해서 앞으로 어떤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겠다 기대 하며 마음 부풀어 있었던 것,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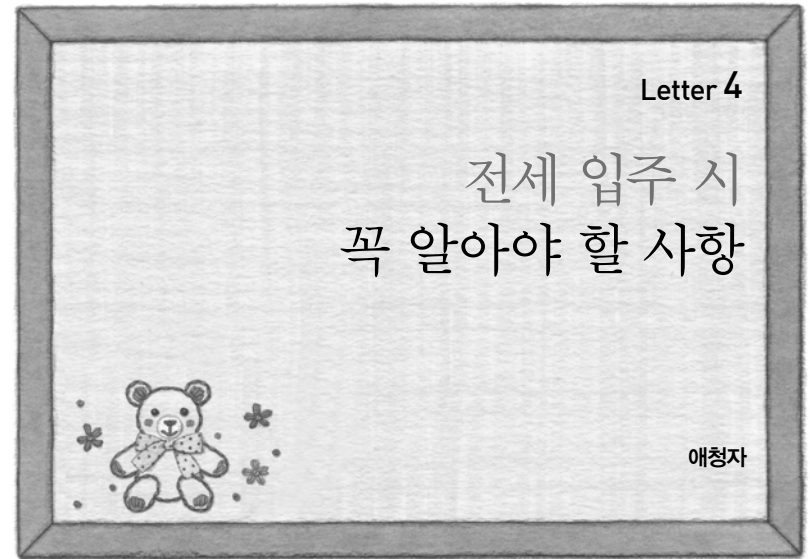
너는 “당신들은 부모의 도리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공박하는데 그 말 들어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도와 줄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도 그러지 않은 건 아니란 걸 너도 잘 알지 않니?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겠니? 너는 또 “공들인 자식 아니니까, 섭섭하게 생각 말라” 하는데 그건 아니다. 너 스무 살 때까지 공들여서 키웠다. 그건 신이 알고 계신다.

어쨌거나 너를 속였다고 분노하는 건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당신들처럼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 지도 모르는 사람들 하고는 이제 더 이상 낭비할 시간도 열정도 없다. 서로 영원히 연락하지 말고 살자.” 그랬지? 그 말 들은 엄마는 충격으로 왼쪽 눈의 실핏줄이 터져 안과에 다니고 있다.

나는 정말로 미안해서 “이해해 달라”고 너에게 말을 하니, 너는 그것도 모두 가식이라고 치부해버렸지? 그럼 너의 진정성과 삶의 가치관은 무엇이나? 부모에게 “배신자, 믿을 수 없는 사람들, 돈을 뺏어가고 온갖 죽는 시늉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자식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다. 너의 그런 말들이 부모의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르는 거냐?

이제 그만 진정하고 평정심을 찾거라. 다 부모의 잘못임을 자인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하는데 “당신들”이라는 표현은 이제 쓰지 말거라. 그리고 부디 행복해야 한다. 네가 행복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기도한다. 부모와 자식은 죽음이 아니면 갈라놓지 못하는 법이다.

- 거둬 거둬 미안한 아버지가.



요즘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지요. 저는 한 집에서만 10년 가까이 전세를 살다가 분양받은 새 아파트로 지난달에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전세로 살던 집은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집주인이 싱크대와 거실, 마루공사를 해서 살던 집이었습니다. 10년 전, 저에게 전세를 준 후 집주인 가족은 더 넓은 집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 거실과 방의 벽지는 집주인이 입주할 때 도배하고 10여 년 동안 단 한번도 새로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도배를 요구했지만 묵살당했고 이사 와서 제가 새로 도배, 장판과 도색을 했습니다.

그동안 10년 가까이 살면서 집 전체 수도꼭지 교환은 물론이고 전등 안정기가 수명을 다해서 전등을 통째로 바꾸기도 했고, 세면대

아래 배관도 교체했고, 싱크대 아래 배관도 삭아서 교환하고, 이렇게 교환 품목이 열 가지도 넘습니다. 20여 년 전 한때 제가 다가구 주택을 소유했을 때 사소한 것으로도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냥 집주인에게 연락 안 하고 모두 제 자비로 수리를 했습니다. 복도 바닥도 수시로 세제 뿌려서 솔로 닦았고 새로 이사 온 세입자가 십년 넘은 싱크대가 어떻게 저렇게 깨끗할 수 있냐고 할 정도로 깨끗이 관리했습니다. 문짝과 문틀에도 손자국 하나 없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애청자들에게 꼭 알려드릴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파트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 시설 보수하고 교체할 때 쓰기 위해서 모든 집에서 걷는 돈인데, 보통 관리비 낼 때 같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집 주인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나갈 때 자기가 그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한테 받아서 나가야 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 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인해 집주인은 '갑'이 되고 세입자는 자동으로 '을'이 됩니다. 저는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거라 아무 때나 이사를 가도 되기에 다음에 들어 올 세입자를 배려한다는 생각으로 도배, 장판을 미리 하라고 전세 보증금을 털 받고 집을 미리 비워줬습니다. 보통 전셋집은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게 하루 사이에 이뤄지니 도배, 장판도 제대로 못하고 들어오잖아요? 제가 새로 들어올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한다고 그랬던 게 저의 불찰이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집을 뺀 후, 집주인에게 집의 하자 부분을 설명하면서 다음 세입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수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현관 비

밀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잔금 전달,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거실 바닥이 많이 상했으니 변상을 해야 된다고, 문짝들도 도색을 왜 마음대로 했냐며 문짝도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내일 보자!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바로 컴퓨터도 뒤져보고 마루 제작사에도 전화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마루는 쓰기 나름이지만 5년이 지나면서부터 닳아서 10년이 최대 수명이라고 했고, 저 같은 경우 변상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잔금 날,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설명했지만 집주인은 제가 끼어들 틈도 없이 노발대발하더군요. 옆에서 부동산중개인도 “마루 10년 넘은 것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건 좀 무리입니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더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은 내가 일단 보관을 하고 있다가 집수리 다 하고 공사비 정산 다 하고 주겠습니다!”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세입자 이사는 못 들어갑니까!”라고 했더니 성질을 내면서 한 장의 견적서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마루를 새로 시공하고 문짝 도색도 새로 하는 데 총 190만 원의 견적서를 가져왔더군요. 제가 “그럼, 집을 왜 세를 주셨어요. 그냥 비워놓지요? 그리고 마루가 천정에 부착된 것인가요? 10년 동안 안 변합니까?” 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저는 그쪽에서 너무 고성을 질러서 말도 크게 하지 못했어요. 저까지 맞장구를 치고 싸우면 상가가 떠내려갈 것 같았습니다.

중개인이 그럼 얼마를 보상해줘야 되는지 묻자 집주인은 저에게 50%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30년 다 된 오래된 아파트인데 정말 황당하더군요. 제가 “저, 그 집 공짜로 살지 않았어요. 보증금을 드렸잖아요?” 했더니 그 사람 말은 “나 그 돈 이용하지 않았어요? 나도

전세 얻어갔으니까!”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솔직히,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결론은 제가 50여 만 원 물어 주고 나머지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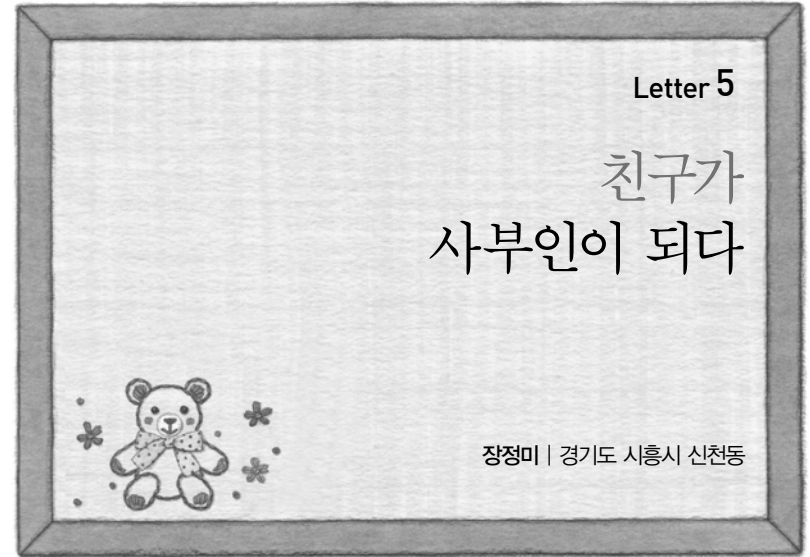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셋집에 들어가실 분들께 유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1. 입주 시 마루나 문짝 등 손상이 있는 부분은 꼭 사진을 찍어 두세요.
2. 고장 난 부분이 있으면 마음대로 먼저 수리하지 말고 우선 주인에게 꼭 통보를 해서 주인이 세입자에게 수리하자고 하면 수리하고 수리 영수증을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3. 도색 등은 주인이 했던 색깔 외 다른 색으로는 하지 말고
4. 집은 잔금 완전히 받기 전에는 절대로 미리 비워주지 마세요.

저는 사는 중간에 전세 보증금을 올려줄 때 집주인에게 제가 수리한 부분과 도색 등을 설명했지만 수리비는 십 원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세면대 배관과 싱크대 배관, 보일러 수리비 등 하나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다 쓸데없는 짓이었습니다. 하자가 생기면 무조건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고 집주인 보고 수리를 해 달라고 하세요.

저는 집주인도 되어 보고 세입자도 되어 봤습니다. 집주인도 영원한 집주인이 될 수 없고, 갑자기 세입자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라면 세를 놓을 때, 꼭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수리 후에 내놓아야 합니다. 집주인이라고 권리만 주장하기보다 의무 또한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라고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요, 이제 그 집보다 집도 넓고 훨씬 부자예요. 새 아파트 분양받았고, 어제는 제 이름으로 셀프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대 한의 아들 육군 상사인 우리 아들과 백의의 천사 간호사인 며느리와의 만남은 엄마인 제가 연락처를 주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해 5월 스포츠댄스 단체반에서 운동을 한 뒤 함께 식사를 하면서 회원들과 통성명을 하던 중 거의가 부부들이데 혼자 오신 남자 분이 있기에 저는 “어디서 오셨어요?”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남자 분은 “방화동이 집인데요. 8년 전 집사람하고 사별하고 딸 둘 하고 지내요. 운동 겸 여자친구도 만날 겸 나오게 됐습니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서도 ‘아내가 암으로 생을 달리했다’는 그 남자 분이 어쩐지 짝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군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하려고 아껴두었던 제 친구 경옥이를 설득하여 소개팅을 해주었습니다.

친구도 혼자된 지 오래되었는데 딸 하나마저 결혼시키고 정말 혼자서 살고 있었거든요. 마침 경옥이가 운동을 하려고 한다기에 저는 스포츠댄스 운동반에 오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그 남자 분과 제 친구 경옥이는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마음에 들었는지, 남자 분은 경옥이를 친인척들한테 인사도 시키고, 딸들한테도 ‘아빠가 만나는 아줌마’라고 소개까지 했답니다. 인연은 여기서 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후 경옥이는 그 남자 분의 큰딸인 은혜를 보자 우리 아들이 생각이 났다며 소개팅을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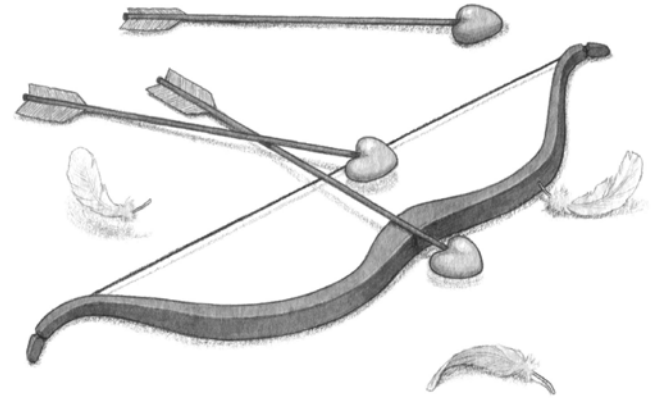
“정미야! 은혜랑 네 아들 선용이 서로 소개팅해 주면 어떠냐? 은혜가 스물아홉이고, 선용이가 올해 서른넷이라고 했냐? 둘이 나이도 맞고, 내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자 남자 분은 스마트폰에 있는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애가 큰애 은혜인데 대학병원 간호사예요. 부담 갖지 말고 한 번 주선해 봅시다!” 하더군요. 그날 우리는 서로 딸과 아들의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9월에 휴가 차 집에 온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소개팅 이야기를 꺼냈고, 아들은 “알았어요. 연락처만 주세요!” 하대요. 다른 때 같으면 자가 알아서 한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통명스럽게 대답하던 아들인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얼마 후 아들에게 서로 만났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별다른 말을 안하더군요. 저는 서로 안 맞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경옥이와 그 남자 분, 저 셋이서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카톡 프로필 사진에 여자친구와 둘이 찍



은 사진이 뜨는 게 아닙니까? 반가움에 경옥이한테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주면서 “애가 은혜 맞냐? 이렇게 예쁘냐?”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 그래. 은혜가 맞네. 웬일이니!” 하는 겁니다. 둘이 잘 만나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거였지요. 그 후 은혜는 집에도 놀러 오고 아들도 그 댁으로 인사도 가고, 경옥이와 저녁식사도 하고, 결혼식 날짜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만난 지 10개월 만에, 아들은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실을 이루게 된 겁니다. 아들은 직업군인인 관계로 5~6월에 교육이 있어서 7월 4일에 역곡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 절친인 경옥이는 그날 혼주석에 앉기로 했습니다. 절친이 사부인이자 아들의 장모가 되는 거라 예식장에서 하객들한테 이런저런 인사를 받을 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웃음이 납니다. 세상에 그 많은 인연 중에 정말 이런 인연도 다 있습니다. 사위 사랑 장모라는데, 친구 경옥이는 친구의 아들이 사위가 되니 저더러 걱정 말라고 합니다. 그런 친구가 참 마음에 들고 좋습니다.



저는 전세대란으로 이사 갈 곳을 못 찾아 전전공공하고 있는 재건축아파트 세입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요즘 전세대란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드디어 올 3월 2일부터 이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월 2일까지 4,600여 세대가 모두 이주를 끝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 아파트는 날마다 이사하는 게 구경거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우리 동에서 몇 집이나 이사를 가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관심이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커다란 이삿짐차가 두 대나 들어와 부지런히 이삿짐을 실어 내리느라 분주합니다. 우리는 이사 갈 곳을 못 찾아 걱정인데 이삿짐센터는 성수기를 맞은 모양입니다.

다른 집들은 용케도 빨리 집을 구해 이사를 가는데 우리는 아직 이사 갈 집도 구하지 못했으니 이사 가는 집들을 보며 부러워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동네 근처에는 우리에게 맞는 전세가 없었습니다. 우리 동네 부동산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아도 전세 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날마다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전셋집이 없어서 부동산중개사의 말을 빌리자면 “전세가 씨가 말랐다”고 합니다. 전세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전셋집이 없으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7년 전부터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재건축 이야기가 있었지만 다른 곳에 비해 전세가 워낙 싸고 외형은 다 낡았지만 내부는 깨끗하고 특히 주변 환경이 좋아서 그동안 불편 없이 아주 잘살았습니다. 형편이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서 그런지 이웃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지하철 5호선이 코앞에 있어서 교통도 편리하고 고등학생이었던 두 아들 학교도 가깝고, 정이 흠뻑 든 곳입니다. 16평, 18평, 5층 짜리 아파트로 대부분 남향이어서 여름이면 시원하고 겨울이면 햇볕이 거실과 안방까지 깊숙이 들어와 아주 따뜻했습니다. 관리비도 싸고 겨울에 난방비도 많이 들지 않아서 우리에게는 여러모로 실속 있고 살기 좋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변에는 녹지도 많고 30년도 더 된 큰 나무들이 많아 공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봄이면 목련이 피기 시작하여 벚꽃, 라일락 등이 차례로 활짝 피면 우리 아파트는 그야말로 울긋불긋 꽃대궐이었습니다. 벚꽃 구경을 따로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면 큰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어 한여름에도 별로 덥지 않게 여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시내 외출했다가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에 들어서면 나무

그늘이 많아 금방 시원해집니다. 그 큰 나무 숲 때문에 가까운 산에서 뼈꾸기가 찾아오고 밤에는 소쩍새가 날아와 새 소리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 얼마나 살기 좋은 동네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을이면 단풍나무와 은행나무가 설악산 단풍 못지않게 곱게 물들었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가을에는 어디든지 카메라만 들이대고 찍어도 아름다운 단풍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겨울에는 흰 눈이 내리면, 오래된 나무에 따로 장식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아파트는 언제 보아도 멋진 풍경입니다.

그런 우리 아파트를 이제는 떠나야 하다니 정말 섭섭하고 아쉽습니다. 크고 멋진 아름드리나무들이 모두 잘리어 나가고 없어져 버릴 것을 생각하니 안타깝고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계단식으로 5층인 우리 아파트는 한 라인에 모두 열 집이 살고 있는데, 저희 라인에서는 며칠 사이 벌써 네 집이 떠났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입주자 중 20%만이 집주인이고 나머지 80%는 세입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80%에 속합니다. 7년 전 전세금 9천 5백만 원에 들어왔는데 중간에 한 번 올라 지금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 그 돈으로 전세는 꿈도 못 꾸게 되었습니다. 월세를 끼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더 걱정이죠. 우리 아파트 1, 2호 라인 열 집 중 딱 두 집만 자기 집이고 나머지 여덟 집은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인 두 집은 이주금을 받아 일찌감치 훌가분하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입자들이 걱정입니다. 돌려받는 전세금이 기껏해야 1억에서 1억 5천인데 그 정도로는 도저히 전세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집주인들이 맨 먼저 떠나고 그 다음으로는 아버지가 직업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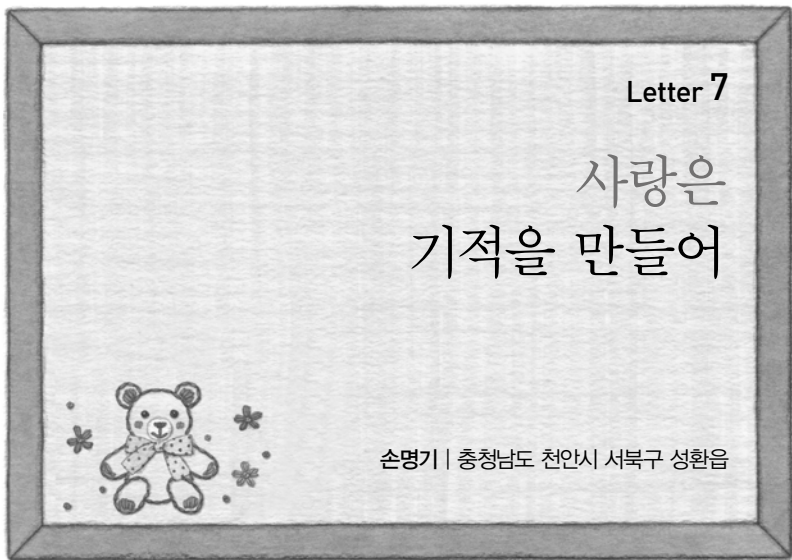
인인 202호가 아버지 근무처 가까운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중학생과 초등학교 남매가 있는 우리 앞집은 바로 어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집과는 현관문을 마주 보고 있어서 서로 택배도 받아 주기도 하고 시골에서 고구마나 밤 같은 것을 부쳐 오면 나눠 먹기도 했는데, 경기도 하남에 있는 연립주택에 세를 얻어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게 네 집이 나가고, 우리까지 여섯 집 남았습니다.

우리 앞집이 이사를 가고 나니 우리 집만 덩그러니 남은 것 같아 행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나마 낮에는 잘 모르다가 밤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아파트를 휘 둘러보면 이사 간 집들이 불이 꺼져 있어 여기 저기 캄캄합니다. 그렇게 밤에 불 꺼진 빈집들이 점점 더 많아질 텐데 그러다가 모두 다 이사 가고 우리만 남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보니 날마다 빗자루를 들고 열심히 청소하시던 경비아저씨들의 모습도 잘 볼 수가 없었는데, 거의 다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아파트는 점점 더 지저분해지고 쓰레기장에는 이사가 면서 버린 가재도구들이 더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흉물스러워지고 을씨년스러워지겠구나 싶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좀 더 오래오래 늦게까지 살고 싶고 그래서 목련, 라일락, 벚꽃도 한 번 더 감상하고 좀 더 욕심내자면 가을 단풍까지 보고서 이사 가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1층 할아버지가 입주할 때 심으셨다는 커다란 감나무도 이제 주인도 없이 홀로 서 있습니다.

그나저나 현실을 돌아보면 이런저런 감상에만 젖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빨리 전셋집을 찾아 기한 안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어디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만큼 살기 좋은 전셋집 없을까요? “전셋집 구합니다!”



저는 천안에서 5살 된 딸과 7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여성시대에 희망이 넘치는 사연만을 남기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힘들다보니 위로도 받고 싶고 응원도 받고 싶어집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사랑스러운 제 첫째 딸. 해가 바뀌어 5살이지만 아직 “엄마, 아빠”도 잘 말하지 못합니다. 주변 어른들께서는 ‘누구네 아들도 5살 될 때까지 말 한마디 못하고 코 찢 찢 흘리고 다녔다.’ ‘누구네 딸은 4살 때까지 말을 안 하다가 지금은 공부를 엄청 잘한다’ 이렇게 다 때가 되면 말문이 트이게 된다면서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십니다.

하지만 그냥 말이 늦는 건지, 어떤 문제가 있어 치료가 필요한 건지, 그 미묘한 차이는 아마 곁에서 항상 지켜보는 엄마가 몸으로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를 유심히 지켜

보게 된 것이 21개월 무렵.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돌아보지 않아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내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 가슴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는지, 치료가 필요하다 느끼다가도 ‘말귀도 어느 정도 알아듣는데 그냥 늦는 거겠지...’ 이런저런 생각에 혼란스러워하다가 언어치료센터를 방문했더니 두 돌 전의 아기는 너무 어려서 전문가들도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해서 6개월 정도 더 지켜봤지만 언어 발달이 폭풍 성장한다는 두 돌이 훨씬 지났는데도 제 아이의 발달은 6개월 전 그대로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대학병원에서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아이는 또래보다 언어 발달뿐 아니라 인지 발달도 1년 반 정도 지연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약간의 ‘자폐 성향’도 보인다고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폐’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충격은 컸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덤덤하게 받아들여지더군요. 어쩌면 제 아이는 자폐가 아닐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울음이 안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자폐라고 하더라도 아직 어리고 초기이니 제가 노력해서 꼭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지가 순간적으로 들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비장한 각오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 한켠에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던 걱정과 두려움이 불쑥 튀어나와 영영 울고 말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놀이 치료와 언어 치료 센터를 알아봤어요. 이리저리 알아보고 언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전화를 했으나 아이의 상태를 체크하는 상담 예약만 한 달을 기다려야 하더군요. 주변에 말이 느려서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이렇게나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



렇게 기다려 상담을 받고, 언어 치료를 시작하려는 시기에 둘째 출산이 겹쳐 한 달을 미뤘다가 작년 9월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이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언어 치료를 받기까지 제일 힘들었던 건 '왜, 왜, 왜! 내 아이가 이런 걸까? 원인이 뭘까. 내가 임신했을 때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아이가 8개월 때 좀 침대에서 한 번 떨어졌는데 그때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내가 너무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아서 그런 걸까...' 전문 의들도 원인을 모른다는데, 저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제 탓 같아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미안하다가도 아이가 수십 수백 번을 얘기한 건데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제 맘대로 하는 걸 보면 화가 나고, 지치고, 속상해서 눈물을 흘린 날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이기에 또 한 번 심호흡을 하고 웃으며 아이한테 다가갔습니다.

언어 발달이나 놀이 치료에 관한 책을 읽어가며 내 아이에게 적용도 해보구요. 무한 반복으로 노래도 불러주고, 책도 소리 내어 읽어주고, 몸으로 놀아줘 가며 여러 가지 자극을 주려고 노력하지만, 100을 쏟아부으면 겨우 1~2정도만 앞으로 나가 주는 아이 때문에 한 번씩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 들어 좌절할 때도 많았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하기에 밖으로 나가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공원이든 전시회든 가곤 했는데요. 그러다 지난 1월, 한 어린이가 관련 엑스포에 갔다가 우연히 '어린이 구호단체'의 부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터라 후원을 하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거짓말 같이 아이의 말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아이가 낱말카드를 저에게 내밀며 '마차, 쿠키, 리본, 포도, 호박, 우유, 고구마' 등 단

어를 말하고 산토끼를 불러주면 '깡충깡충'을, 시계 노래를 불러주면 '똑딱똑딱' 의성어들을 따라하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나 너무 기특해서 박수를 쳐주다 감정에 북받쳐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책에서 본 건데요. '모죽'이라는 대나무는 씨앗을 심으면 5년 가까이 눈에 띄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5년쯤 지나면 하루에 70cm씩 6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성장하여 30m가 넘는 큰 대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5년이 되기 전, 겉으로 보이는 성장이 없다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영양분 섭취하기를 멈춘다면 대나무는 땅속에서 죽어버리고 만듭니다.

저희 딸도 지금 그 대나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띄는 큰 변화가 없고, 너무나 미약한 전진만 있어 미래가 어둡게 보이지만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딸에게 꾸준히 물과 영양분을 준다면 5년간의 대나무의 기다림처럼 저의 노력과 사랑이 놀라운 결과를 보여줄 날이 꼭 오리라 믿고 싶습니다.

이제 언어 발달의 첫걸음을 떼기 시작한 우리 딸. 우연의 일치인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그 어린이 구호단체를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손길을 건넨 그날부터 제 딸에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생겼기에 이런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어 신께 맹세는 못하지만 내 아이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내 남은 생애 주변에 작은 것이라도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말입니다.

조금 많이 늦은 제 아이의 언어 첫걸음, 같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갈 길이 먼 저에게도 지치지 말라고 힘내라고 해주세요! 힘들 땀 숨기고 혼자서 끙끙거리며 싸매고 있는 것보다는 주변에 알리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이 더 힘이 날 것 같아 이렇게 편지 띄워 봅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으며, 오늘도 힘을 내보렵니다.

Letter 8

이건 대박 꿈일 거야



장미자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아버지는 저에게 하얀 종이 한 장을 내밀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종이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고, 저는 그 종이에 무언가를 적으려고 펜을 마구 찾았지요.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 보니 아버지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오른손 주먹을 꼭 쥐 채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25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갑자기 꿈에 나타나 이 딸에게 과연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일까? 그래, 이건 분명히 복권에 당첨이 될 대박 꿈이다.’

저는 아홉시가 넘자마자, 난생 처음 로또복권 두 장을 샀습니다. 손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숫자에 동그라미를 그린 후 접수를 하고 지갑 속에 고이 접어 넣어 두었지요.

‘이제 며칠만 지나면 나는 팔자가 달라지는 것이다. 하하하! 당첨

금을 받으면, 제일 먼저 친구들을 불러 최고급 호텔에서 파티를 해야지. 그리고 으리으리하게 큰 집을 사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도 사는 거야. 또 뭘 하지? 그래, 명품 가방 하고 이탈리아 디자이너가 만든 최고급 옷도 사야지. 모두들 얼마나 나를 부러워할까.’

상상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질 정도로 저는 한껏 달떠 있었습니다. 이윽고 학수고대하던 토요일 저녁, 열일 젖혀놓고 텔레비전 앞에 튀어나올 정도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앉아, 내가 가지고 있는 로또복권 번호를 당첨번호와 몇 번이고 대조해 보았으나 5등도 안 걸리고 모조리 팡이었습니다. 순간 내 입에서는 욱부터 튀어 나왔고,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쌓고 또 쌓은 번쩍거리던 탐이 와르르 무너져내렸습니다. 팡이 된 로또복권 종이를 오만 신경질을 내며 잘근잘근 잘라 휴지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내가 다시 복권을 사는가 봐라, 어디. 흥!’

하지만 돌아가신 아버지는 다음날 다시 꿈에 나타났습니다. 또 하얀 종이를 주며 빙그레 웃더니 사라졌고, 저는 또 로또복권을 구입했지요. ‘쓸데없는 희망은 갖지 말아야지, 마음을 비워야지’ 하면서도 지갑 안에 들어 있는 로또복권을 생각하며 저는 벼락부자가 된 상상을 쉴 새 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또 팡이었고, 이번에는 신경질보다 헛웃음만 실실 나더군요. 헛웃음을 웃다 말고, 문득 오래 전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강원도 정선 산골짜기에서 남의 땅 몇 뼤기 빌려 농사짓던 가난한 농부 아버지는 읍내에 나갔다가 오는 날이면 웬지 기분 좋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요일 낮이 되면 어김없이 12인치 흑백텔레비전 앞에 바짝 붙어 앉아 ‘자, 준비하시고 쏘시오!’ 하면 돌아가는 과녁판에 화살로 쏘는 주택복권 추첨 방송을 뚫어져라 보셨습니다. 어

머니는 매번 “쌍돈만 내다버리는 기래. 만고에 쓸데없는 짓인 기래” 하시며 혀를 끝끝 찾으나, 아버지는 위풍당당한 표정으로 “기다려 보래. 내가 이거 걸리면 300만 원도 넘는 큰 집을 딱하니 당신한테 사 줄 거니까” 하며 큰소리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주택복권 추첨 방송이 끝나면 번번이 헛기침을 과장해서 몇 번 하고서, 어머니 눈을 피해 망태기를 둘러매고 썩하니 고추밭이나 옥수수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 번은 복권에 당첨됐다며 읍내로 고추 팔러 가셨던 아버지가 어머니의 꽃무늬 팬티 석 장을 사 오신 게 전부였어요.

두 번이나 복권은 팡이 되었고, 아버지도 더 이상 꿈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상하게 저는 자꾸 복권가게를 어슬렁거리게 됩니다. 두 번의 실패 때문인지, 으리으리하게 큰 집,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 값나가는 명품백과 이탈리아 디자이너의 옷을 사겠다는 되지도 않는 야무진 꿈은 차차 줄어들었고, 그저 자그마한 보험을 들어 놓은 듯 마음만으로 즐거웠습니다. 일주일에 5천 원을 투자한 보험치고는 꽤 괜찮은 만족이었거든요.

‘딸아, 이 종이에다가 욕심 부리지 말고 가끔 숫자를 써 넣어 보렴. 착한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살다보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란다.’ 아버지는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앨범에 있던 아버지 흑백사진 한 장을 꺼내 지갑에 끼워 넣고, 아직 요행심이 남은 것인지 아버지 사진 뒤에 로또복권을 함께 넣어 두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마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복권을 사고 계시겠지요. 어머니는 그 옆에서 여전히 “쌍돈만 내다 버리는 기래. 만고에 쓸데없는 짓인 기래”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나라에서 복권 1등에 당첨되어 어머니에게 “거 봐라. 내가 걸릴 거라고 했제, 하하하!” 대차게 소리치며 두 분이 행복하게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도라는 섬에서 조그만 자영업을 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희는 보통 아침 7시에 사무실 불을 밝히고 영업 준비를 합니다. 요즘엔 어디서나 자주 접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이 찾아와 어설픈 한국어로 “맘! 안뇽라시여~” 하며 인사를 건넵니다. 매일 아침 얼굴에 웃음을 가득 머금고 인사를 나누는 이 청년과 저는 이제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먼저 웃어주면 만날 때마다 저를 보고 웃어 주는 순박한 사람들, 세 번만 먼저 질문을 하면 어설픈 한국어로 대답을 하고, 마음이 가까워지는 착한 사람들입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얼굴 모양새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고 다들 길에서 만나도 인사 한마디 건네지 않지만,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들은 두려움이 앞서 먼저 말을 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하네요. 이 청년과 친해지게 된 것도



제가 먼저 인사를 하고 자꾸 말을 붙여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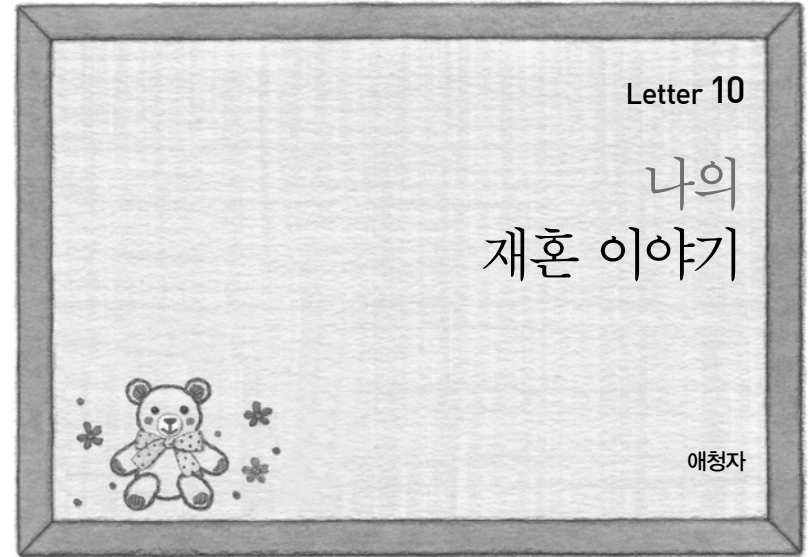
얼마 전 아주 몹시 추운 날이었어요. 저는 그 청년을 사무실로 불러 따뜻한 커피를 한잔 주며 마시라고 했죠. 그러자 청년은 “코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몇 번이나 말하더군요. 전 어디서 왔냐고 물었는데 청년은 그 대답은 안 하고 그저 자기 고국이 그림다는 말만 했습니다.

유난히 옷을 두껍게 입었기에 제가 “많이 추워요?”라고 물어보니 죽을 만큼 춥다고 하더군요. 여기가 섬이다 보니 바닷바람이 엄청 세거든요. 저는 이 먼 곳까지 왜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가난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어서요” 이렇게 말하는 청년의 말 속에는 고국과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고국에 있는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크고 검은 두 눈가에 미소를 가득 지어 보였어요. 저도 덩달아 웃으며 그 청년과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참 후 갑자기 이 청년은 엄지손가락을 우뚝 세워 보이며, “엄마 같애~ 감사합니다~”라고 하더군요. 순간 저는 울컥했고, 금방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면 이상할 것 같아서 저는 그 청년에게 이제 가보라고 하고는 돌아서는 청년의 뒷모습이 너무 가여워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국과 기온 차도 엄청 나고, 말도 안 통하는 타국에 와서 뜨거운 차 한잔을 주는 저에게 엄마 같다고 말하는 저 청년은 힘들고 추울 때마다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했을까요? 작업장까지 가는 동안 저 청년은 고국과 가족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을지 안쓰러운 마음에 저는 그 청년 뒤에서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하루가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힘들 속에서도 웃음과 행복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과 희망을 간직한 채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 다 이루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포근함이 전해지는 오늘의 날씨에 다른 이들은 무거운 겂옷을 벗고 다니지만 변함없이 두꺼운 옷을 몇 겹 입은 채 오늘 아침에도 그 청년은 먼저 웃으며 큰소리로 말합니다. “맘, 안놓라시여~”라고요.



2002년 뜨거웠던 월드컵의 열기가 가시기 전에 아내는 갑자기 나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내 나름대로 아내와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고 자부했고 가정엔 별 문제가 없던 터라 참으로 당황스럽고 절망스러웠다. 그 후 계속되는 이혼 요구와 싸움... 그 싸움에 지쳐 갈 때쯤인 그해 11월, 결국 나는 이혼하는 이유도 모른 채 이혼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아내가 내게 이혼을 요구했던 이유는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내가 결정적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새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컸던 아내에게 “지금 이렇게 이혼하면 네 아들이 너처럼 힘들게 살지도 모르는데, 상관없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내가 단호히 “응, 상관없어!”라고 말하는 모습에 나는 모든 것을 거둬드렸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나는 초등학교 2학년이던 아들을 데리고 정

신없이 살기 시작했다. 문득 문득 외롭다는 생각과 함께, 아들에게
엄마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2년이 흐른 후, 누나는 나에게 ‘여자 한 번 만나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다. 나의 짝을 찾아주려 알아보던 누나에게 나는 조건을
제시했었다. 상대방에게 아이가 있다면 여자아이였으면 좋겠다는
것, 그거 하나였다. 이유는 단순했다. 같은 아들이라면 왠지 모를
경쟁심이 생겨 차별을 하거나 묘한 다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다행히 누나가 소개해준 여자 분은 딸을 가진 미혼모였
고, 그분의 딸아이는 내 아들보다 한 살 적었다. 여자 분도 마음에
들었고, 다행히 여자 분도 나를 마음에 들어 했다.

나는 결코 재혼을 서두를 생각이 없었다. 한 번 실패한지라 결혼
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서로 상대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진행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나는 여자 분과 만남을 이어가며 아이들과의
접촉도 늘려갔다. 같이 여행도 다니고 휴가 때도 꼭 같이 보내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들을 여자 분 집에 혼자 보내서 자고 오게
했고, 여자 분의 딸도 우리 집에서 잠을 자게 했다. 갑작스런 결혼
이 아이들에게 부적응과 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의 접촉 빈
도를 높여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려고 했던 거였다. 아들과 달리 딸
은 처음에 나에 대한 경계심과 적개심이 상당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강도는 열어졌고 많이 가까워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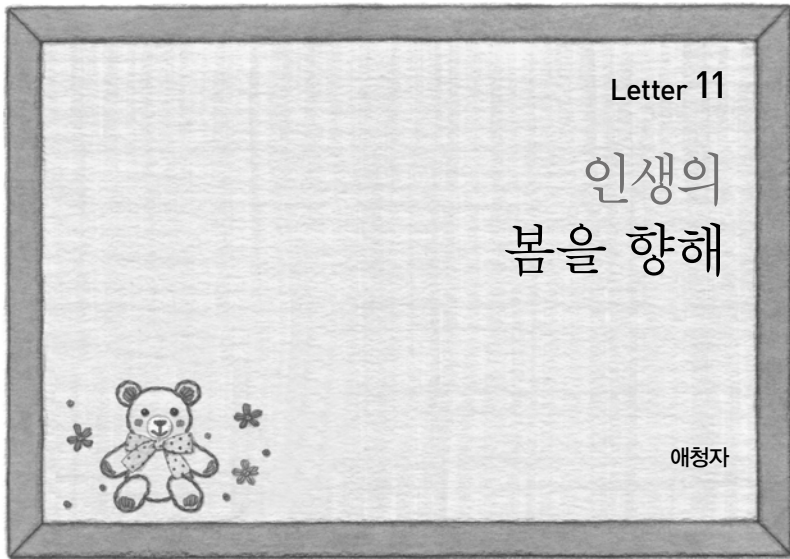
그 무렵 나는 아들에게 엄마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내 생각이 틀렸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엄마를 만들어주기보다는 내가 그 엄마 될
사람을 정말 많이 사랑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하
게 되었다. 우리가 서로 깊이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
게 좋은 아빠, 엄마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결혼을
하면서 아내와 다짐했던 것은 절대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말자는 것
이었다. 가뜰이나 심리적, 정신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에게 부부의
싸움은 너무나 큰 두려움으로 여겨질 것 같아서였다. 다행히 지금
까지 살아오면서 아이들 앞에서 큰소리를 내고 싸운 적은 한번도 없
다. 물론 우리 부부 사이에 큰소리를 내며 싸울 일도 없었다.

우리 사이에는 감사하게도 너무 예쁜 딸이 태어났다. 난 가끔 우
스갯소리로 아내에게 “우리 아이들은 소속이 다 다른 ‘다국적 군’이
네!”라고 농담을 한다. 하지만 이 아이가 우리에게서 너무나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 나와 아내를 더 두텁게 만들고 아이들의 연결고리
가 되는 중요한 아이다.

그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이다. 그동안 했던 사업이 잘 풀
리지 않아 경제적으로 고생을 하긴 했지만, 다행히 우리 가족은 별
탈 없이 행복하게 잘살고 있다. 올해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큰딸
이 단둥이 차를 타고 갈 때 나에게 “아빠는 정말 좋은 아빠인 것 같
아요”라고 말을 했을 때, 내가 아빠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음에
마음이 뿌듯했다. 딸이 한창 사춘기였던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그
런 말을 했었다. “나는 너에게 절대 친아빠일 수 없고 너는 절대 나
에게 친딸일 수는 없다. 하지만 좋은 아빠, 좋은 딸은 될 수 있으니
함께 노력해보자”라고.

세상은 이혼한 사람에게 관대하지 않다. 자의든 타의든 이혼한 사
람은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
게 된다. 하지만 나를 포함한 그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행복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다.



이 혼녀로 세상과 마주 서서 수없이 많은 좌절과 아픔 속에서 지칠 대로 지쳐 망가진 몸을 고치려고 병원에 다니던 어느 날, 버스 안에서 여성시대를 통해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여성시대에 하소연 하듯 글을 올렸고 MC 두 분의 격려를 들으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돌파구를 찾다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몇 주 후 구청 사회복지사의 실사 방문이 있었고 다음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날, 지난 1년 사이 재산이 약간 있었던 것이 확인되어 수급자 지정이 보류되었다며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금융기관 확인서를 받아오라더군요.

금융기관 직원은 6개월이 지난 일인데 왜 지금 확인서가 필요하

냐고 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더니, “구청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파악이 될 텐데 이상하네요” 하더군요. 그 와중에 제 뒤쪽에서 평소 알던 사람이 다가와서 “어머, 어쩌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고 그래. 그건 진짜 못 사는 사람이라는 표시인데…” 하는 겁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떻게 서류를 받아들고 나왔는지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설움을 당했으니 이제 좀 무더질 때도 됐건만, 받아든 서류를 담당 복지사에게 전하는데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저, 잠시만요…. 죄송하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요…. 잠시만 조금만 더 생각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라며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나 자신과 내리지 않는 고열과 싸우며 천둥번개 치는 허허벌판에 알몸으로 혼자 버려진 것처럼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애들은 살려야지’ 전 다시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연락이 없어서 수급자 취소되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주민센터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세요.” 돌아오는 답변은 저를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것 같더군요. 그래도 정신을 다시 한번 추스르고 죄인 아닌 죄인으로 또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나 하나만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자니 원칙대로 진행해야겠지만 서운한 마음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전화라도 한 통 해주지, 며칠도 못 기다려주나, 본인의 부모형제라도 이렇게 할까.’ 서러운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또 다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하며 몇 번에 걸쳐 만나는 새로운 복지사들에게 다시 반복하여 아픈 사연들을 이야기하며 또 뜨거운 눈물

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조금만 더 참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덜컥 이혼부터 하면 어떻게 살려고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런 말들을 너무나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야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한 알 두 알 모으기 시작했던 수면제가 한 통이 되었고 밤마다 이걸 먹어야 하나, 애들에게 말을 하고 먹어야 하나, 그냥 영양제라 거짓말하고 먹을까, 약통을 들고서 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송파 세 모녀처럼 마지막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억되고 싶진 않다는 각오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게 수급자가 되는 과정이 두 달 넘게 걸렸고 10명이 넘는 공무원, 복지사들을 만나면서 사람들과 눈만 마주쳐도 주눅이 들고 누가 큰소리만 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주저앉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복지사 분을 만났습니다.

“괜찮아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희망이 현실이 될 거예요. 힘내시고 포기하지만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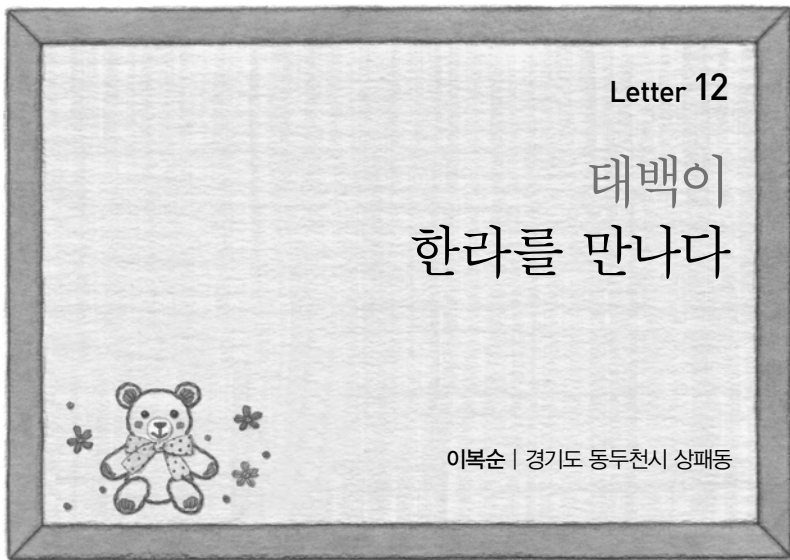
이렇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며 이혼하길 잘했다고,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열심히 살면 좋은 날 있을 거라고, 이야기 다 들어주며 웃어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이상하게 처음부터 괜찮아요, 잘했어요, 잘 버텼네요, 이런 말로 제 고개를 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20대 나이의 복지사도 반말인 듯 아닌 듯한 말투와 주눅들 수밖에 없는 어조로 물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된 게 본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 하지 마세요. 언제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사소한 것이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연락주세요”라며 이름과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그 복지사님 성함은 한선희였습니다.

‘그래, 살자. 이 악물고 살아서, 나도 이런 사람이 되자.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용기 주고 일으켜 세워 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복지사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고 이전 그만 지난 세월에 대한 아픔과 눈물의 시간들을 잘라내 버리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으로 아이들과 행복의 날들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겨울 내내 한번도 보일러를 튼 적 없지만, 행여나 엄마 마음 상할까봐 춥다는 말 대신 양말 두세 개 껴 신으며 밝게 웃어주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넓은 세상을 열어주려 합니다. 큰아이는 언어에 강한 것 같습니다. 작은 아이는 어깨너머로 배운 피아노 실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의 재능과 꿈을 맘껏 펼칠 수 있게 해주고 정말 지치고 아픈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혹시라도 최선을 다하는 복지사 분들께 조금이라도 누가 된다면 죄송합니다. 지칠 대로 지친 아픈 사람에겐 작은 말 한마디도, 지나가는 눈 흘김도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에게도 마음이라는 것이 있음을 잊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복지사 분들께 가슴 깊은 감사 전합니다.



엄마 전 병상에 누워 있는 아들의 다리를 들어 올리는데 기운이 팔려 아들의 다리를 들다 놓치고 말았다. 미안한 마음에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아들의 말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엄마, 왜 그렇게 힘이 없어?”

“그러게. 왜 엄마가 힘이 없을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아들은 지킬 수 있어.”

그렇게 말은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은 날이 많았다. 누워 있는 아들의 몸에서 가래를 빼내기 위해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 석션을 하다보면 손과 다리에 쥐가 나서 일어설 수가 없다.

지난 2월에 인터넷 카페 모임에서 제주도 여행을 간다는 공지가 떴다. 제주도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한라산 윗세오름도 오른다고

했다. 그 공지를 보는 순간 ‘아! 바로 이거다’ 하며 꼭 가고 싶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는 분이 이사를 가면서 주고 간 러닝머신을 열심히 닦았다. 아들의 간호를 하면서 시간이 날 적마다 러닝머신으로 내 다리에 힘을 기르기로 했다. 헌데 그것이 그리 만만하지 않았다. 하여 난 아들과 약속을 했다. 꼭 제주도에 가서 한라산에 있는 윗세오름에 올라 사진을 찍어서 아들에게 보여주기로. 아들도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제주도에 가는 것을 허락해주었다.

헌데 가기 보름 전부터 아들의 몸이 심상치 않았다. 이상하게 향문이 열려 있고 안하던 기저귀를 채우라고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안고 가야 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아무래도 내가 제주도에 갈 수 없겠다’ 마음속으로 포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아는지 남편이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응원을 해준다. 너무도 고맙다.

3월 2일, 김포공항에 인터넷 카페 회원들 43명이 모였다. 다들 나이가 있는 이들이지만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처럼 들떠있었다. 그렇게 난 여행을 떠났다.

30년간 아들의 병간호를 하며 지낸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제주에서의 첫날과 둘째 날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없다. 오로지 나에게서는 아들과의 약속만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드디어 3월 4일, 한라산 산행이 있는 날이다. 43명 중 산행을 하는 사람은 겨우 13명이었다. 내 몸무게는 43.4kg, 키는 158cm. 모두들 내가 과연 저 산을 오를 수 있을지 의아해 했다.

더구나 그 전날 카페의 대장이신 ‘표준언니’가 우리 방에 와서 며칠 전 내린 눈으로 인해서 산에 오르는 것이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다며 나에게 산에 오르는 걸 포기하면 어떻겠냐고 했다.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한방을 쓰던 ‘산하래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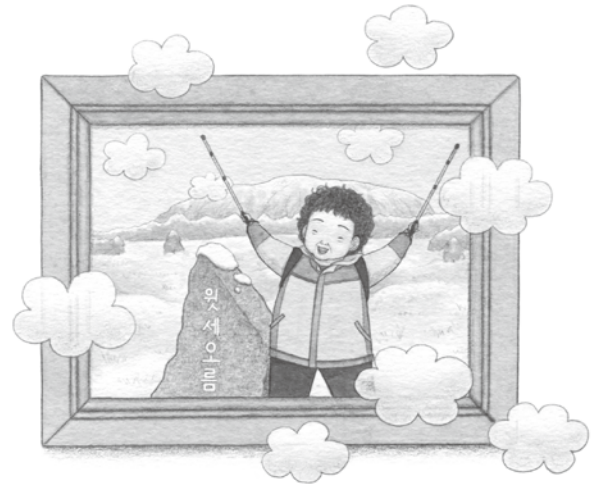
나에게 힘을 실어준다.

“걱정하지 마세요. 태백언니가 가다 못 가면 내가 업고 가든 지고 가든 할 테니까 염려 마세요.”

이 얼마나 고맙고 고마운 일인가. 말할 수 없는 고마움에 난 고개를 떨구었다. 그런 내 마음과 산아래님의 마음을 아는지 그림 그렇게 하라는 대장님의 말을 듣고 함께할 수 있다는 안도감에 긴 한숨이 나왔다. 마음을 다잡아먹고 산행 준비를 했지만 막상 산에 오르려니 두려웠다.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 무릎까지 푹푹 빠진다. 처음 한 발자국을 산에 들여놓았다. 아차, 싶었다. 이걸 아니다. 너무 무서웠다. 발을 들여놓는 순간 뒤돌아가고 싶었고 나로 인하여 오늘이 산에 119 헬기가 뜰 것만 같았다. 앞에서 가는 팀들의 뒷모습이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턱하니 막힌다. 이대로 하산을 해야 하나 어떡하지? 그런데 뒤에서 따라오던 산아래님이 “언니, 잠시 천천히 올라오세요. 내가 앞 팀에게 좀 천천히 가라고 할게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몸을 움직이니 숨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안정이 되었다.

그때부터 나와 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눈보라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거북이걸음으로 나아갔다. 손가락 끝에 칼로도 드러내는 듯한 아픔이 몰려왔다. 휘몰아치는 눈보라가 내 얼굴을 강타한다. 두 뺨이 시리고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그럴 때마다 내 살아온 인생길이 주마등처럼 보였다. 눈보라 이까짓 썸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보다 더한 고통도 아픔도 참고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얼마를 걸었을까, 앞서 가던 표준언니가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내 얼굴을 바라본다. “태백아, 우린 여기까지만 가자. 다른 사람



을 생각해서 우린 이만 내려가자. 더 가면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이 생길지도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안 내려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알았어요, 언니. 나도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내려갑시다.”

그런데 또 산아래님이 나에게 힘을 실어준다. “언니,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가 책임지고 태백언니와 함께할 테니까 정말 걱정 마세요. 만약 우리가 밑에서 모이기로 한 시간까지 못 가면 그냥 속소로 갈 테니까 허락해주세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산아래님을 보더니 표준언니도 할 수 없는지 알았다고 한다. 그리고 언니와 다른 두 사람도 내려갔다.

그리하여 산행은 계속되었다. 얼마쯤 오르니 마음이 안정이 되었는지 경치가 눈에 들어왔다. 난 천상을 걷고 있었다. 신이 만든 천상에서 눈으로 된 화원을 거닐고 있었다. 내 살아생전에 다시 못 볼 풍경을 그날 다 본 것 같았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계단이 끝나고

저 멀리 광야가 펼쳐져 있다. 앞에는 한라산 백록담이 보였다. 그 밑으로 펼쳐진 눈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나는 꼭 해보고 싶었던 포즈로 사진을 찍었다. 스틱을 하늘 높이 세우고 내 몸도 우뚝 세웠다. 드디어 우리가 목적했던 정상, 윗세오름의 휴게소가 보였다. 그곳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나왔다. 제일 먼저 아들의 얼굴이 아닌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남편의 배려가 없었다면 내 어찌 마음 편하게 이곳에 올 수가 있었을까! 마음속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남겼다.

“여보, 사랑해.”

그리고 아들에게도 마음속으로 말했다.

“아들아, 엄마가 한라산을 정복했다. 우리 아들 사랑해...”

물론 이곳이 한라산 정상은 아니지만 윗세오름 난 이곳을 정복하였다.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 내 몸이 거대한 이 산을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때문이다. 엄마의 굳은 신념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아직까지 엄마가 건재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장장 5시간의 산행을 마치고 내려오니 함께하지 않았던 회원들이 우리들을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우리를 보는 순간 휴스언니가 달려와 끌어안는다. ‘잘 다녀와서 다행이라고. 그리고 나 때문에 표준언니가 내려와 버스에 타면서 울었다’ 했다. 버스에 올라타는데 아무도 보이질 않고 표준언니의 모습만 보였다. 갑자기 난 그 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다. 왜인지는 몰라도 눈물이 끊임없이 나왔다.

그렇게 나 ‘태백산맥’의 산행이 끝이 났다. 내 닉네임인 태백이 한라를 만난 것이다. 집에 와서 아들에게 사진을 보여줬다. 남편도 아들도 대견하게 나를 바라본다. “저 정말 대단하죠?” 아무에게나 마구마구 자랑질을 하고 싶다.

Letter 13

즐거워 캠핑을 위하여



김성일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로

저는 사계절 중에 특히 봄을 좋아합니다. 새파랗게 올라오는 새싹의 상큼한 빛깔을 보고 있노라면 새로운 활기가 듬뿍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봄을 좋아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캠핑 때문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캠핑을 즐기기 시작한지는 9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캠핑이라고 거창하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어린 시절에는 ‘야영’이라고 하여 여름방학이 되면 아버지, 동생과 함께 조그만 텐트 하나, 코펠 그리고 카바이트 조명 정도 가지고 고향 냇가에서 2~3일 정도를 보내곤 하였습니다. 통발이나 대나무 두 개를 교차시켜 엮은 그물인 족대로 물고기를 잡아서 생선국수도 끓여 먹고, 저녁이면 소박한 캠프파이어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처럼 거창한 캠핑 음식은 아니지만 시골에서는 쉽게 접하지

못했던 카레를 먹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지요. 밤에는 좁디 좁은 텐트에서 다다다닥 누워 불을 끄고 아버지가 해주시는 무서운 얘기를 들으며 동생과 아버지 팔을 꼭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야영은 저에게 너무 소중한 추억으로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때의 영향으로 저는 결혼을 하면 내가 가진 소중한 추억을 내 아이에게도 만들어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할 무렵부터 가족 캠핑을 시작했습니다. 집보다 불편하기는 하지만 아이에게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집사람도 기꺼이 찬성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꽤 시간이 흐른 지금 캠핑은 저의 가족이 함께 즐기는 취미 겸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캠핑을 시작했을 때에는 캠핑을 즐기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가족과 캠핑을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고,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만큼 캠핑 인구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전국의 캠핑장만 해도 제가 시작하던 시기와 비교하면 지금은 4~5배 정도 늘어나 전국에서 운영 중인 캠핑장이 약 2,0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늘어나도 성수기나 주말이 되면 예약하기 힘들 정도니 정말 많은 분들이 캠핑을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캠핑을 즐기는 분들이 늘어나다보니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아쉬운 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애청자 분들께 요즘 캠핑 문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캠핑문화의 가장 아쉬운 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서로 간의



예의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캠핑을 즐기하고자 하는 분은 많아지고 장소는 부족하다보니 대부분의 캠핑장은 텐트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좁습니다. 일부 캠핑장은 텐트와 텐트가 거의 맞붙을 정도로 좁은 경우도 있습니다. 텐트 자체가 방음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소음 차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밤에는 텐트 사이 간격이 10m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도 어지간한 소리가 선명히 들립니다. 거의 붙어 있는 경우에는 옆 텐트 사람의 숨소리까지도 들리고,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지나가는 개미 발자국 소리도 들릴 정도입니다. 물론, 이러한 점도 야외 캠핑의 재미로 생각하면 되지만, 새벽까지 웃고 떠드는 소리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소위 '떼캠'이라 하여 몇 팀이 단체로 와서는 술자리를 포함하여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소란스럽기 때문에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캠핑이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고, 아이도 있다 보니까 급적 참고 넘어가려 하지만 소음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자제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음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탁할 때만 잠깐 조용할 뿐 다시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다보니 요즘은 옆 사람들과 인사하는 것 자체가 서먹해지고 캠핑장 분위기도 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외국의 캠핑처럼 드넓은 초원이나 호숫가에서 한적하게 하는 캠핑이 아닌 만큼 지나친 음주나 소란은 자제하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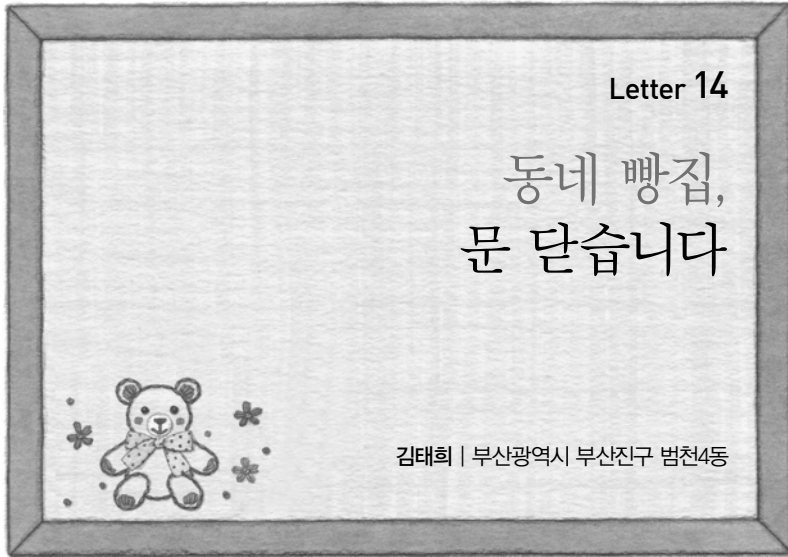
그리고 요즘 캠핑을 가보면 집을 그대로 옮겨 왔다고 해도 좋을 만큼 장비를 많이 가지고 오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캠핑 장비가 늘어나서 차를 바꿨다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더군요.

야외에서 자연도 느끼고 집에서와 같은 안락함을 느끼고 싶은 분들의 개인적 취향이니 뭐라 할 수는 없겠지요. 아무튼, 가지고 다니는 장비들을 보면, 전기조명, 전기밥솥, 선풍기, 열음을 얼리는 제빙기, 휴대용 냉장고, TV, 프로젝터, 스피커 등등 정말 다양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캠핑장은 전기시설이 되어 있어 '릴선'이라고 하는 연장전선을 연결해서 전기 장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설치된 전기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릴선끼리 서로 연결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장비가 대부분 전력이 많이 소모되는 제품들이라 보니까 릴선에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도 많고요. 거기에다 많은 분들이 릴선을 다 풀지 않고 일부를 감아 놓은 상태로 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전선에 열이 발생해서 불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의 텐트가 열에 취약한 재질임을 생각할 때 정말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캠핑장은 자연보다는 대규모 유원지 같은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대화면의 프로젝터와 고용량의 스피커를 갖추고 영화를 보는 분들, 게임기를 가지고 와서 TV에 연결해서 하는 분들,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휴대폰 게임 소리들. 거기에다 텐트마다 환하다 못해 눈이 부신 LED 등까지... 그야말로 여기가 정말 자연을 느끼고 싶어서 온 곳인가 싶을 정도로 화려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봐도 텐트마다 켜 놓은 등이 밝아서 별도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즐거움의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굳이 시간을 투자해서 온 캠핑장에서 만큼은 조금 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을 즐기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 제가 어려워지면서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상인들은 장사가 안된다고 걱정을 한다. 우리도 그 중 한 사람이다. 속이 답답하고 막막하다.

우리는 제과점을 운영한다. 우리 동네가 재개발 지역이 되면서 이사를 많이 갔다.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나는 직장을 구했다. 5년 동안 열심히 직장과 가게를 오가며 살았지만 매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자 남편이 새벽시장에 알바를 나가기 시작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알바를 나갔고 아침 10시에 제과점으로 와서 빵을 만들었다. 가게 매상은 갈수록 떨어졌다. 여기저기서 폐업 신고를 하고 각자의 길을 나섰다. 그래도 남편은 말하곤 했다.

“나는 절대로 문 안닫을끼다!”

자신이 동네 빵집에 마지막까지 남겠다고 직장과 가게를 오가는

힘든 생활을 계속했다. 남편이 새벽 알바를 다닌 지 4년째 되던 해, 나는 대상포진이라는 병을 얻게 되었다. 한 달 동안 병 치료를 하면서 가게에만 있어 보니 정말 이젠 가게를 접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프랜차이즈가 늘어나면서 개인 빵집들은 하나둘 가게를 접는다. 30대에 시작해서 50대 중반이 되기까지 1년 365일 중 쉬는 날은 명절 외에는 없었다. 오로지 가게에만 있으면 웬지 마음이 편했다.

나는 남편을 설득했다. 남편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21년 지켜 온 빵집을 빈 점포로 내놓기로 결정했다. 셔터 내린 가게를 보고 나는 집에 와서 대성통곡을 하였다. 실컷 울고 나니 속이 후련했다.

‘21년 오랜 세월 동안 저희 빵집을 찾아오신 단골 고객님들께 여성 시대를 통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언젠가는 또 빵집에서 뵈 날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도 꿈을 꾼다. 남편이 하얀 가운을 입고 흰 베레모를 쓰고 빵을 굽습니다.

“여보, 바게트 빵 나간다~!”

“자자, 커피에 얼른 찍어 잡쇄 보소.”

이런 목소리를 하루 빨리 듣고 싶습니다. 전 남편이 구운 빵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남편 빵을 너무나 먹고 싶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던가요. 그 꿈을 향해서 남편은 새벽 2시에 일어나 출근합니다. 저 또한 환승을 찍으며 일터로 갑니다. 재기를 위해 오늘도 꿈과 목표를 향해 달립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남편이기에 꼭 저희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노모! 아내! 딸!

김승인 서울 석곡구 인촌로

안녕하세요!

저의 아내는 52년생 동갑배이씨 노모라 외동딸!

이렇게 부녀회는 많아도 저와 아내가 신당을 운영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던중 1998년 봄 오주시경 심장문을 달고

항상 똑같은길과 가사가 귀국학교 되는중 오르니 뒤누에

피우는 풀이줄 우리의 집으로 가는 길은 아내나 큰누를 해마다

가로 15분거리!

10분거리쯤 가을까? 갑자기 오른나 오른발이 배근히며

호흡이 가벼지는 느낌이 어찌부라인지 모르지만 아미증세가

은느낌을 받은 아내에게 곧 뒤집다가라 정약속사카 잘못됐다!

일부 났을라리 앓고 천천히 걸어서 제 허리속으로 해오는 했다

잠시후 집에 도착하자 마자 간헐적 사위를 띠고 지리에 누어

거니오도 나와 내가 부재시 아내가 해발등인 원가 저러한것들은

날기좋게 뛰어놀고 오 여력은 쉬어야하는데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고 무수한 생각인들다 같이 듣는지도



다음날 오전 7시 어찌처럼 아내와 저는 곧노래로 노모님께

인사드리고 순가번지 내려가는중 어찌밤과 비슷한 거리에서

똑같은 광대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한눈에 알것같다 세사로운 양희 아님가? 답은

생각보다 왼쪽 나이께 절제야인과 함께 받아야며

내일 우리자랑까지 절정치고 수술하기로 결은!

그날밤 어머니 모시기에 우리 나 황제가 모여 날아와 울다. 울다

않는 곱박기새누리 최중 권검투 오전 10시정각 수술에 들어가기로

결정되 되었다고 하는 동양물에 받든을 나니 78년도에 절은은 하근내

좋은것! 좋은것! 좋은것! 하4 못마추리 못가반 못마추리

못입려주리 그래도 정그라는일 없이 어머니상경 한카리 열심히 카려

늘 노력하며 동생들나도 흥행도 관되 이우정행이 있었는데 - - -

아내와 딸은 불렀지만 뭐라 할말은 잇고 윤기안고려고 굳게

약속지키는 모습을 받고 저는 눈을감고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수술비용은 심장판막과 관상동맥 하나를 인삼수술로 짐으되기로 결정

광강 12시안후 저는 가족들의 지켜보는 중환과실로 수술은 생생기로

잘 되었답니다 밝사님이 말씀이 온 가족들이 할말과 함께 모든것이

끝났습니다. 한데 그런 환희는 남편이 어머니가 깨실까만 반씩



확실하다는 것은 다들 날 믿어주지 않는데 걱정이 없는데다가 없었던
나보다 생활수준이 낮으면 1월에 중생도 빈말이라도 걱정
하는 쪽이라도 해주었으면.....

하는 모습들이 제 마음에 수습시키면 다 더 아픈 곳도 많이 다
귀찮아졌다.

내가 잘못한 건지 그 때부터 아무도 모를 줄은 다

나 역시 좋은 성격에 어머니께 평결하듯이 부끄러워 드렸지요

"이 사람들이 어머니 뵈러 온다면 나까지 만나게 해 주시게 해 주시게

전대 모자라게 해주시오! 어머니는 고개로 향하셨다

시간은 흘러서 2009년이 저물어가는 12월달 44살을 찾았다

버려진 것을 더러워라 하여 사건을 겪은 듯같이 고인고이기 등을 장난까지

제대로 문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제 이름을 부러 들어오는 간혹나할까

약간 두려웠지만 태연히 웃으며 들어가 앉았다

약간은 흔들려 제 마음을 수화. 리우로 돌려보내신 손님. 발원 등을 기부해

까지 마친 선생님은 웃음만 웃음을 김승민씨? 해피하여 웃음을 보였다

"선생님 뵈러오면 받으시지요. 저 돈까지 알도록 해주세요....."

'김승민씨! 파키스탄이나도 들어보셨지요? 그 돈은 저를 위해서

공공은 없습니다. 45이 있던 알기 되어 들어오신 선생님께선 금전 부채



해서라도 좀더 선뜻 해주면 < 김승민씨 대우비도? > 서러해서 아내
말씀하시요? 걱정하시니 조만간 지출액이 나뉘게라도 그동안
병원과 협력해서 잘 처리해 보겠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아내를 부러 외는 줄은 다 1980년부터 하던
실감을 회복하자고 했으니 아내를 이젠 저것 생각하더니

"총알은 1명 구하라고 1년만 더 할 테니 당장은 이직은 포기
할 나지 않으니 봐주세요 다만 해 줘도 좋을 텐데?....."

그 말에 힘을 얻어 내가 손발이 다 쉴러 금방 알아 볼 수 있다면

그때 그만두자고 해서 그때부터 저는 사랑과 아내에

반려가느라 되었지요

제가 할 일을 아내가 하니 일이나 고되리 저는 잘 알기

때문에 몸도 많이 휴양하는 순간까지 열심히 하려고 굳게

마음을 먹어도 지인들이 생각에 아내를 두는 일도 아꼈어요

말하곤 몸도 많이 조금씩 나아지니 인사로 맞히는 손님들이

말하곤 귀찮은데다 온성 장사는 들리니 잘끔 해서 가는데

몸이 불편하니 조금은 덜 관공하곤..... 끝까지 해 보려고

힘을 내자고 아내와 함께 다짐하며 38살에 죽을 뻔한 어머니와

대장암이 4년은 말론라 해줘서 6년만에 종양학만은 위해서



라도 타이핑 고장나고 아픈편 알되는데 ! ! ! !

거의 30년 가까이 아내나 쉬일을 하면서 열 손가락 안에 들은 겁니다. "가계원은 딸은 순자 이지호, 주위미씨는 순화씨

말하는 사람은 이지호 "독종부부" 라고 ---

제 목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단가면 권로비로 입성나지요

저는 편파리올해 강역하게 가계를 넘겨주고 하고

기원 아내도 "딸아, 나까지 누르면 큰일나니 여기서 그만

열심히 되요래니 약한 사람들에게 본래를 보여주세요!!

우이 좋은것의 2일만이 저약이 됐는데 원리 대한 가계가 매번

되니 그만한 너무 되려하고 협정하러구도.

24년, 2013년 12월 30일 이월로 2년부하 지극까지 1년이

덜게 치환하리 운동하리 그대로 조습이대로 나아리는 지이가

받이질 않으니 노오개비로 걱정이 태산 같으니 권로 피박해

지시어 숙회 방화? 지어나야 되겠는데 몸이 안을 안을요!

1년이 넓게 되출을 못하디보니 속으로 좋아리. 아무반로 이년것이

예민해져 운동하는 친구들도 하나씩 떨어져가는데도 하리 우음중도

실관편이나 약을 처방해라 라는 반로 안을 우음중만이라도 내가

이제 보겠단리 다짐해 놓는다 "우음중 약을 처방했습니다."



P.S. 편지에 글도 적다. 작았다. 고부카림도 모두 마우스메들 기라메로

이해해 주시리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희은님! 강석우님!

이사 언생님이 형제가 권전되면 근지를 쓰지 못할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하루에 10장이상 글쓰고 하는데

잘 되리 알습니다.

"여보, 나 내일 일찍 볼리출 보리올래?.. 다들날 8시30분중

나가러니 밤10시에 귀가 하셔서 아내가 음이네 나는 30년

을 말아오던 음생생태? "아! 이아누라 아보아나?"

음력하는 지에게 다녀보리 힘들면 그만둘게 되새기마."

이런 아내에게 제보방이 선포하는 노려가 "말신만 있네주대면." 이기로

제 비출을 한미복을 기본이리 아내로 "그대로 정할올라."

노오! 아내! 딸!

이 서부분은 아마도 나는위해 하에서 내려보이신 요양이다

하루속히 열심히 운동해서 권로대를 돌아가서

식거를 모두가 즐거우 비명은 지르는 2 순간까지 저는

저사람이 12년전처럼이다.

베스트셀러 제조기는 미용계에도 있었다

IBK기업은행 학동역지점 거래고객

(주)그리에이트 이승수 대표

글 | 김하늘 (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드라이기, 매직기, 세팅기 등 미용기자재부터 파마약, 염색약, 탈모 집중 관리 제품, 스타일링제, 클리닉제 등 모발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주)그리에이트는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회사다. 미용업 종사자 중에는 (주)그리에이트를 모르는 이가 없지만, 일반 소비자에게는 모로칸 오일 판매처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회사에 다니며 사업을 구상하던 시절, 동경 미용 박람회에 다녀온 지인이 머리카락을 한 번만 훑으면 파마가 나오는 기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관심을 갖고 살펴보다가 아이롱 파마 기기를 수입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소모품이 그렇듯, 손때가 묻을 수록 내구성이 떨어지고 고장이 나기 마련. 기기를 판매한 지 3~4년이 지나자, A/S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기기를 사용하던 미용실에서 대리점을 통해 A/S를 접수하면, 저희가 제품을 받아 포장해서 일본 제조사에 택배를 보냈습니다. 수리가 끝나면 일본에서 저희 회사에 택배를 보냈고, 우리가 물품을 수령해 대리점에 전달하면, 대리점에서 다시 미용실에 물건을 전했습니다. A/S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대표는 국내에서 A/S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제조사와 의견을 좁힐 수 없었고, 그때부터 미용기자재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다.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다 보니 제품 개발이 쉽지 않았습니다. 업계 종사자들을 찾아 방법을 묻고 또 물었고, 기술자를 찾아 발품을 팔았습니다. 실패를 거듭한 끝에 제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하나의 산을 넘자, 또 다른 산이 버티고 있었다. 개발한 제품을 판매할 미용시장 경계가 좋지 않았다. 하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법. (주)그리에이트의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고, (주)그리에이트가 국내 최초로 세팅기 개발에 성공하면서 미용시장을 선점하기 시작했다.

“기존까지는 파마약을 이용해서 머

리를 마는 ‘콜드파마’ 밖에 없었습니다. 열파마라는 개념이 없었지요. 그래서 미용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각 대리점에 소속된 강사들이 헤어 디자이너들에게 ‘세팅기를 이용한 스타일링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후 교육을 받은 디자이너들이 주변 미용실에 자발적으로 기술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이제 열파마는 필수 기술이 됐습니다. 열파마를 시작하면 서부터 비로소 파마에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됐고, 이로 인해 IMF로 주춤했던 미용업계 경제가 다시 회복세를 맞았습니다.”

미용인들이 (주)그리에이트의 제품을 자발적으로 알리고, 믿고 사용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미용기자재에는 파마약, 염색약 등 화학제품이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철로 만들면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 금방 녹슬게 되지요. 반면 스테인리스를 사용하면 제조가는 높아질 지 몰라도 녹이 안 슬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최고의 원·

부자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5년 지난 매직기의 A/S가 들어올 정도라고 하니, 이 대표의 진심이 제품에 고스란히 담겨 제 가치를 발휘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처럼 제품 하나 하나에 공을 들여서일까. 이 대표는 단 한 개의 제품도 소비자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전 제품을 고루 팔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지사마다 교육장 옆에 디스플레이 이존을 만들어, 강의와 세미나를 듣기 위해 방문한 디자이너들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제품군을 접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또한 그는 두발 화장품 개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자체 브랜드

개발에 앞서, 모로칸 오일을 수입·판매하며, 두발 화장품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백화점 및 면세점에서도 판매할 계획이다.

“기자재 판매 시장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두발 화장품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홈쇼핑에서 화장품 다음으로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 헤어제품이라는 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 소비자를 타겟으로 한 자체 브랜드 상품을 개발해 백화점 등의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 대표는 기술금융 지원에 나서준 BK기업은행 학동역지점 최병철 지점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에 최 지점장은 “(주)그리



에이트는 기술 개발에 힘쓰는 등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이 (주)그리에이트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이 대표에 대한 신뢰를 표했다.

현재 (주)그리에이트의 행보는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는 물론, 미

국, 유럽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 대표에게 남은 과제는 이제 단 하나. 제2의 도약을 위해 열정적인 인재를 찾아 인력을 쇄신하고, 미용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회사를 널리 알리는 것이다. 한 뼘 더 성장한 (주)그리에이트를 만나게 되길 기대한다.



(주)그리에이트 이승수 대표(왼쪽)와 IBK기업은행 학동역지점 최병철 지점장(오른쪽)

TIP 이승수 대표의 성공 노하우

1. 진실 :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진실함이다.
2. 성실 :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3. 성취감 : 맡은 일에 성취감을 느껴야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다.

(주)그리에이트

대표 이승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0길 9 그리에이트 헤어아트센터 (02-511-4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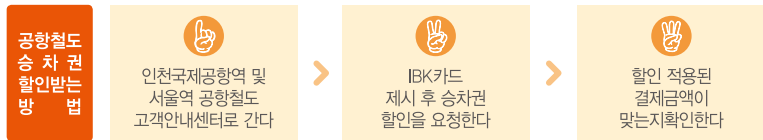
홈페이지 <http://www.create.co.kr>

공항철도 이용요금 IBK카드 결제시 1,100원 할인!



IBK카드와 함께하는 공항철도 할인 이벤트 안내

- 기간** 2015.1.1(목) ~ 2015.6.30(화)
- 대상** IBK카드 소지회원(선불, 기프트카드 제외)
- 제공 서비스** 공항철도 이용요금 IBK카드로 결제시 **1인당 1,100원 할인**
1인 8,000원에서 6,900원으로 할인받아 구매가능(본인포함 4인까지 가능, 현장발입)
※ 서울역 및 인천국제공항역 공항철도 직통열차(무정차열차)에 한함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4-1956호 (2014.12.30)

• 이 안내장은 2014.12.30 현재 기준이며,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은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6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서비스는 1년 이상 축소, 폐지없이 유지되고, 부가서비스 변경시에는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대금청구서, 우편사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휴사의 변경, 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위기 및 그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시에도 사전에 고지하지, 사전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 2개 이상 복수카드 소지자 정보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용카드사간 공유됨으로써 본인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과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080-800-0191) • IBK기업은행은 금융·행위를 받지 않습니다. 유리경영 위반사실이나 개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ibkethics@ibk.co.kr)

• 신용카드 납용은 가계경제에 위법이 됩니다. • 연체 이자를 (최저 연 16.5%~최고 연 24%)은 정상 이자를 및 연체 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 BEAUTIFUL
_아름다움

• FAITH _신뢰



WHITE Cospharm co.,ltd.

• DREAM _꿈

아름다움과 꿈을 실현하는 기업
신뢰할수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서겠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하는 기업, 꿈을 실현하는 기업, 정직과 신뢰의 기업”

화이트코스팜(주)
www.whitecospharm.com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성거길 194
TEL. 090-033-0500



화이트코스팜(주) 대표브랜드
“화이트오가니아”

WHITE
Organia®
natural cosmetics

2015 식약처 인증 우수 화장품제조 (CGMP) 인증획득!

사과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정난채 씨를 찾아서

글 | 성기애 (여성시대 작가) 사진 | 송인혁



사과꽃은 첫사랑과 닮아있다. 흰 듯 붉은 듯 수줍게 피어있는 자태와 은은하면서도 아련한 향기가 첫사랑을 연상케 한다.

눈부신 봄 햇살이 가득 내려앉은 사과밭에서 여성시대 가족 정난채 씨의 손길은 분주하기만 하다.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까지는 사과꽃을 따주는 '적화'작업을 해야 한다. 다붓다붓 꽃이 여러 개 핀다는 건 여러 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니, 가장 튼실한 사과를 얻기

위해 적절한 수의 꽃만 남겨두고 따내야 한다.

하루 종일 사과나무를 옮겨 다니며 꽃을 따낸다. 위쪽 가지에 달린 꽃을 따기 위해 사다리에 오르락내리락 종종 걸음을 해야 한다. 겨울이면 가지치기 작업을, 봄이면 꽃과 열매 수는 작업을, 여름이면 잎을 수는 작업을, 가을이면 따는 작업을, 다시 겨울이면 택배로 사과 부치는 일을 하느라 설 틈이 많지 않다.



정난채 씨가 키우는 사과의 품종은 홍로, 아오리, 부사다. 출하 시기가 가장 빠른 홍로가 꽃도 가장 먼저 피우니, 요즘 홍로 꽃을 따기에 여념이 없다.

5년 전만 해도 남편과 함께 하던 작업을 혼자하려니 힘도 많이 딸린다. 충북 괴산이 고향인 정난채 씨는 과수원집 막내딸이었다. 귀한 막내딸 대접을 받으며 자라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스물네 살 사과꽃처럼 풋풋한 나이에 선을 뵈고, 선을 본지 두 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연애를 하던 그 두 달 동안 나는 편지가 여러 통이었다. 편지지 6~7장에 술술 써내려간 편지를 주고받으며 정을 다졌다. 웃는 모습이 해사한 남편은 말수가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다정했다.

결혼 후 사과농사를 시작할 때 영농조합에서 사과 재배에 관한 얘기를 듣고 와서 아내에게 찬찬히 설명해주던 남편이었다. 사과나무를 한 그루 두 그루 늘리는 재미와 두 아들이 쑥쑥 자라는 모습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아들 둘을 다 공부시키고 이제 우리 부부 노후만 생각하며 즐겁게 살자고 약속했던 남편은 작업중 기체가 전복되는 바람에 5년 전 아내 곁을 떠났다. 남편이 떠난 그해, 혼자 오두



마니 남아 사과밭을 돌보려니 눈물만 흘러내렸지만, 자식들을 위해 남편이 남겨둔 사과밭을 위해 마음을 다잡고 일만 했다. 타지에 나간 아들들은 주말이면 찾아와 남자 힘이 필요한 일들을 해주고 간다.

사과밭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정난채 씨의 유일한 친구는 라디오다. 새벽에 일어나 이른 아침을 먹고 집에서 2분 거리인 사과밭에 올 때 가방에 라디오를 꼭 챙겨들고 나온다. 라디오 사연에 귀를 기울이고, 노래도 함께 흥얼거리다보면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면 그제야 라디오를 끄고 집으로 향한다.

저녁을 먹고 나서 일기를 쓰고, 독학으로 배운 하모니카로 노래

한 곡조를 뽑고, 책을 읽다 잠이 든다. 아무리 피곤해도 이 세 가지 일은 꼭 하고서 잔다.

삼중당 문고의 ‘테스’ ‘레미제라블’ ‘좁은 문’을 탐독하던 문학소녀였던 정난채 씨의 일기장은 수십 권이 넘는다. 사과 판매에 도움이 될까 시작한 블로그에 글과 사진을 올리는 재미도 쏠쏠하다.

“올해는 사과꽃이 다른 해보다 많이 폼이 좋네요. 느낌이 좋아요. 얼마 전 곡우에 비가 내렸었잖아요. 곡우에 비가 내리면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느티나무 잎이 함박에 올라오더라고요. 함박에 올라오면 그해는 풍년이라고 했어요.”

사과꽃 그늘에서 환하게 웃는 정난채 씨 말대로 올해는 농사도 우리네 살림도 풍년인 해였으면 하는 기원을 하며 사과밭을 내려왔다. 한참을 내려왔는데도 사과꽃 향기는 내내 코끝에 걸려있었다.



코너 속 편지



일러스트 | 조신애

- 82 공감사연 공감전화 부의금 어떡해야 할까요?
- 86 장웅의 단필총 제가 나중에 배부르게 해드리겠습니다
- 92 나의 연애시대 그때 그 사람이 그림다
- 97 노래하나 추억하나 발에 올려 퍼지는 '풀잎사랑'

공감사연 공감전화

부의금 어떡해야 할까요?

이경희 |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아이들의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엄마들과 얼마 전부터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거의 다 자라서 결혼을 준비할 나이가 되었기에 휴대폰 이야기 방에서 서로 인사만 하다가 이제는 시간 여유도 있으니 얼굴도 좀 보고 살자는 취지 아래 8명이 모이기 시작했지요.

모임을 하게 되면 회비를 내게 되니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분명한 사람으로 하자고 해서 얼떨결에 제가 총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애경사가 있을 땐 회비에서 조금 성의를 보이고 나머지는 각각의 뜻에 따라 개인 축의금과 부의금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는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한 사람이 모임에 잘 오지도 않고 회비도 3분의 1만 내고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회비를 낸다며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고는 감감 무소식이고, 모임을 왜 안 하느냐고 문자를 해놓고는 정작 모임 날에는 본인이 안 나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모임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 본인에게 여러 번 의사를 물어보았는데 직접적으로 대답은 없고, 지인을 통해 들은 바로는 모임에 뜻이 없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모임은 계속 이어져갔고, 저희는 비록 적은 회비를 모았지만 연말이라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선물을 사자니 서로 필요하게 다를 것 같아 고민 끝에 저는 회원들에게 연말 선물로 '상품권 10만 원' 썩을 나누면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임에 나오지 않는 그 사람이 모임 커뮤니티의 <이야기방>에 친정아버지 부고를 올렸습니다. 저는 여러 회원들과 상의를 했고, 상의 결과 '애사'니까 회비에서만 지출을 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다른 엄마가 대표 자격으로 장례식장에 방문했고, 다음날엔 모임 중에 가장 연장자이신 분이 개인적으로 저녁에 장례식장에 들렀는데 그분이 반기지를 얹아서 괜히 간 것 같다며 서운함을 표시했습니다.

장례식이 있던 후 일주일 뒤 우리는 모임을 하게 되어 모두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그분도 참석하겠다고 연락이 왔더군요. 저희는 장례식에 와주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선물로 준비한 상품권을 나누어주며 회비를 받는데 다른 사람은 밀린 회비를 다 정리하며 상품권을 받는데 오랜만에 나온 그분은 두 달 치의 회비만 내고 상품권을 챙기더니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희는 '친정아버지의 장례식에 와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다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왜, 각자 개인 부의금은 안했어? 다들 너무 상식이 없는 거 아니야? 회비에서 썩끔 하고, 그게 뭐야?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나는 이런 경우는 살다 살다 처음 봐.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서 말하는 거야!”

이렇게 열을 올리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모임의 총무라 그동안의 일들과 회비가 밀린 것, 그리고 모임 참석 여부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했지만 그건 그거고, 다짜고짜 서운하다고만 하니 더 놀랐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모두가 미안함보다는 당황스러움에 더욱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운함을 이해는 하지만 본인의 처세에 문제가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장례식장까지 가 준 사람에 대한 감사 표시도 없더군요. 저희가 개인 부의금을 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장용의 단 · 필 · 층

제가 나중에 배부르게 해드리겠습니다

한미경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1987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는 제복을 입고 가는 여군을 보고 '내 길은 여군이다!'로 결정하고, 여군 부사관에 지원했다. 나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유도선수여서 신체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다른 여자들보다 월등히 뛰어났다. 극비사항이지만 168cm에 77kg, 건강한 대한민국 표준 여군 몸매였다.

부사관 학교 교육을 수료하고, 대구 하양에 위치한 201특공여단 본부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부임 첫날, 본부 대원들과 첫 대면에서 멋진 병사 둘을 발견했다.

"나는 한미경이다! 고향은 서울이고 중학교 때부터 유도선수였다. 여자라고 우습게 봤다간 큰코다친다. 잘 지내보자."

부사관 학교에서 배운 FM대로 소개하고 기선을 제압하려 했지만, 딱 벌어진 어깨에 장동건 뺨치는 외모의 김성일 병장, 예의 바르고 군복 스타일이 완벽한 품생폼사 김정호 병장을 보고 나는 두근

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내 나이 21살! 병사들은 대개 나보다 두세 살 많았다.

서울 K대학 경제학과에 다니다가 입대한 김성일 병장과 S대학 무역학과에 다니다 입대한 김정호 병장, 나는 두 병장을 한꺼번에 흠모하기 시작했다. 둘은 작전과 작전병이었는데, 야간 근무 때면 라면에 계란을 세 개씩이나 풀어서 불타는 내 마음을 전했다. 나는 결심했다.

'너희들 제대만 해라! 내가 휴가 나가서 상관이 아닌 여자로 변신해서 너희 둘 중 하나를 내 남자로 만들고 말리라! ㅎㅎㅎ.'

그렇게 행복한 꿈에 젖어 있을 때, 뺨질이 진성환 병장이 나타났다. 진성환 병장은 소송대대 운전병으로 여단에서 소문난 뺨질이였다. 그해 가을 우리 부대는 안동으로 여단 독수리 훈련을 떠났다. 특공여단의 꽃이라는 천리행군을 앞두자, 여 단장님은 나를 배려하여 천리행군에는 참가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나 나는 곧 전역할 내 사랑, 김성일 병장과 김정호 병장과 함께 걷고 싶어서 천리행군에 참가했다.

그때 뺨질이 진 병장은 13명 우리 팀원이 먹을 부식을 짚어지고 같이 행군하게 되었다. 아침부터 걸어서 점심은 건빵으로 때우고, 드디어 야영지에 도착하여 우리는 저녁을 하려고 진 병장에게 부식을 가져오라고 했다. 순간 진 병장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부식 차량을 찾는 것이었다. 수송부 운전병 중에 중간고참인 진 병장은 부식 차량에다가 우리 팀 식량을 내려놓고, 담요와 신문지만 구겨 넣어 가짜 군장을 꾸린 것이었다. 부식 차량이 집결지로 따라올 거라 생각한 것은 진 병장의 착각이었고, 우리 숙영지는 민가에서도 5km 이상 떨어진 안동 학가산 기슭이었다. 진 병장의 군장 속을 확인한 고참들에게 그는 곡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지도록 보리타작을 당했다.

부대원들은 훑아 떨어졌지만 나는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룰 수 없



었다. 텐트에서 나와 보름달을 보고 있는데 진 병장이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 나가면, 한 하사님이 오늘 저 때문에 배고팠던 거 명심하고, 꼭 찾아뵙고 배부르게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이 고문관아, 너 빨리 제대해서 내 눈에 안 보이는 게 도와주는

거다!’

내 사랑 김성일, 김정호 병장이 전역을 하자 군 생활에 낙이 없게 됐다. 뺨질이는 계속 뺨질거리어서, 진 병장 부모님이 면회 오셨을 때 귀대 시간에 미 귀대한 사건도 있었다. 탈영이라고 온 부대가 뒤집혔고 병사들과 읍내를 다 뒤져 막걸리집에서 잠든 진 병장을 업고 온 일까지 있었다. 진 병장이 전역하는 날은 아침 9시에 여 단장님께서 전역신고를 해야 하는데 또 뺨질이가 없었다. 부대가 다시 뒤집혔다. 전역식 전날 진 병장이 후임들과 부대 철조망 건너 수박밭에서 막걸리 파티를 하고는 원두막에서 잠든 것이었다. 진 병장 때문에 전역식이 두 시간 연기되었지만 전역을 하긴 했다. 그가 제대하니 앞던 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했다. 여 단장님도 말씀하셨다.

“한 하사, 결혼하더라도 저런 놈 조심해라. 저런 뺨질이는 처음 봤다.”

드디어 기다리던 휴가가 왔다. 서울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김성일! 김정호! 기다려라. 너희 둘 중 하나를 내 배필로 만들어 주마!’

서울에 도착하여 김성일 병장에게 전화를 하자 반가워하며 내일 저녁에 김정호 병장과 K대 앞 학사촌 주막에서 만나자고 했다. 오호라! 나 보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뜻이 분명했다.

다음 날, 태어나서 가장 예쁜 모습으로 변장하고 학사촌에 들어서자 “단결!” 하며 둘이 경례를 했다. 그 멋진 모습! 완벽한 스타일! 나는 몽롱해져버렸다.

그런데, 인사를 마친 김성일 병장이 옆에 있는 여자를 소개하는 게 아닌가. “한 하사님, 제 여자친구입니다.” 예쁘고 청순한 여대생이었다. 절망, 슬픔, 허전함이 몰려왔다. 잠시 후 어떤 여자가 우리

자리로 오더니 또 인사를 했다. “정호 오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한 하사님 반가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야 했다. 나의 짝사랑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군 생활에만 매달린 나는 중사로 진급하고 경기도 양평 20사단으로 전출을 가게 되었다. 내 나이 벌써 26살을 향해 가자 서울 집에 올 때마다 어머니는 “이것아! 이제 그만 전역하고 시집이나 가!” 하고 닦달하셨다.

그러던 어느 봄날, 어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우리 교회 집사님네 아들이 인물 좋고 키 크고 집안도 좋단다. 토요일에 맞선 보기로 했으니 꼭 와야 한다.”

운명의 토요일, 나는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청순가련형의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커피숍에 나갔다. 그러데 커피숍에 들어서는 순간, 약~! 나의 맞선 상대는 바로 바로, 고문관 뺨질이 진성환 병장이었다.

“야, 진 병장! 네가 여기 웬일이냐?”

진 병장은 “단결!” 하고 거수경례를 하고는 “한 하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되물었다. 나는 건대사대부고를 졸업했는데, 진 병장은 그 옆 광남고등학교를 졸업했단다. 양가 부모님은 같은 교회에 다녔고, 우리 둘은 26살 동갑. ‘이 무슨 하늘의 장난이란 말인가? 하필 맞선 자리에서 만나다니!’ 그래도 내가 상관인지라 “야, 막걸리나 한잔 하자!” 하고는 자리를 옮겨 막걸리와 파전을 먹고 헤어졌다.

부대로 복귀하여 생활하는데, 어느 날 저녁 누가 면회를 왔단다. 위병소로 나가보니 뺨질이 진 병장이었다. 단호하게 말했다.

“야, 찾아오지 마라. 너는 나의 부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 후로도 진 병장은 토요일마다 진드기처럼 계속 면회를 왔다. 화도 내고 모진 말도 했지만, 8개월 동안 계속 면회를 왔다. 그런데

토요일마다 계속되던 면회가 12월이 되면서 딱 끊겼다. 무슨 일일까, 나는 너무도 궁금해졌다.

그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부대 간부들과 양평 시내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서울 본가에 가려고 양평 시외버스터미널로 갔다. 그런데 저쪽 구석 의자에 술에 취해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은 진 병장이 아닌가? 3주 동안 나를 애태우고 면회를 오지 않은 뺨질이 이상하게 반가웠다. 서울 가는 것을 포기하고 진 병장과 취하도록 술을 마셨다.

서울행 버스는 끊겼고, 나는 진 병장을 부축해서 여인숙으로 향했다. 진 병장을 침대에 누이고 나는 관사에 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가 “한 하사님을 군대 있을 때부터 짝사랑했다”고 엉엉 우는 게 아닌가. 나는 차마 부대로 갈 수가 없어 침대 밑에 주저앉았다. 아침 햇살에 눈을 떴다. 그런데 이럴 수가! 내가 진 병장 품에 안겨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이것은 운명이야!’ 몇 개월 후, 뺨질이 말했던 ‘한 하사님 배부르게 해드릴게요’가 실현되었음을 알았다. 내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전역지원서를 제출하고 진 병장과 결혼했다. 딸 연아가 태어났고, 우리는 행복하게 잘살고 있다. 진 병장이 가끔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면 내가 소리친다.

“야! 진성환 병장! 동작 그만!”

그러면 우리 신랑은 “네! 한 하사님! 동작 그만!” 하며 복명복창해 준다. 진성환 병장, 사랑한다! 네가 내게로 와주어 정말 고맙다!

* 추신. 201특공여단 본부대에서 한미경 하사와 함께 근무했던 전우 여러분! 보고 싶네요. 김성일, 김정호 병장님 꼭 연락하세요. 단결!

나의 연애시대

그때 그 사람이 그립다

이순옥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나는 64살로, 한때 나를 한방에 감전시켜 내 혼을 빼앗아갔던 사람, 그러나 지금은 그저 고집불통에다 잘 빠지는 ‘빼돌이!’ 금방 욕하는 ‘욱돌이!’일 뿐인 남자와 27년째 살고 있다.

어쨌거나 이 남자와 나는 지인의 소개로 1988년 6월 21일에 처음 만났다. 그때 내 나이는 서른일곱, 남자 나이는 서른아홉이었다. 서른일곱이 되도록 변변한 연애 한 번 못해본 내게 첫 만남은 무척이나 어색했다. 더구나 처음 본 남자와의 첫 식사가 스파게티라니! 나는 최대한 예쁘고 조신하게 먹으려고 애를 썼다.

“저기... 음식이 마음에 안 드세요? 왜 그렇게 못 드세요.”

“아니에요. 맛있어요. 제가 원래 양이 적어서...”

나는 포크로 스파게티 양을 적당히 조절해내느라 무던히도 애를 먹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손까지 수전증에 걸린 듯 떨려왔다. 그러다 얼핏 앞에 남자를 결눈질해 보았는데, 이 남자가 그런 나를 계속

보고 있었던 듯 눈이 딱 마주쳤다.

“순옥 씨, 근데 손은 왜 그렇게 떠세요? 어디 불편하신 건 아니죠?”

순간, 번쩍 불꽃이 튀는 듯했는데 감전이라도 된 걸까? 나는 현기증이 일어난 듯 눈앞이 핑 돌았다. 남자가 내게 뭐라 말을 건넸으나 그 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듯 아득했고, 그때 지은 얼굴 표정과 눈빛이 내 마음을 확 끌어당겼다.

“순옥 씨, 물이라도 좀 드세요.”

딸만 다섯인 집안의 넷째였던 내게 ‘오빠’는 로망이었는데, 이 잠깐의 표정과 눈빛에서 나는 ‘오빠 같은 든든함과 따뜻함을 품은 남자’를 보았던 것 같다. 나는 이 찰나의 순간, 37년을 살아오면서 한번도 접한 적이 없었던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미묘한 감정에 휩싸였었다.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고 했던가! 그 당시 난 수동타자를 배우고 있던 참이라, 그 오빠에게 타이프로 매 편지마다 한 편의 시를 지어 보냈다.

당신은 아시나요?

무엇이 나의 달콤한 꿈을 빼앗아 가버렸는지.

무엇이 나의 생활 리듬을 깨어버렸는지 당신은 아시나요?

누가 나의 잔잔한 가슴속을 두들리며 놓았는지.

누가 나의 깊은 마음속에 감추어두었던 정열을

되살아나게 하였는지 당신은 아시나요?

88년. 8월 15일 23시에 순옥.

타이프가 서툴러서 손으로 쓰는 것보다 몇 배나 힘이 들었고, 편지지의 여백을 예쁘게 꾸미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설레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매사에 소극적이고 소심한 나의

어디에서 이런 편지를 보낼 용기가 솟아났을까?

그런데 그와의 만남은 거듭되었으나, 이런 내 마음과는 별개로 이 남자는 ‘오빠 같은 든든함과 따뜻함을 품은 남자’의 눈빛은 고사하고, 도대체 날 좋아하기나 하는 건지 의중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나는 계속 조바심을 치며 혼란스러워했다.

“어... 미안해요. 오늘 너무 바빠서 좀 늦었네요.”

“아... 괜찮아요. 많이 안 기다렸어요.”

“뭐 먹을까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죠? 아, 실은 제가 밥만 먹고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 남자가 의도적으로 밀당을 한 거라면 일단은 성공적이었다. 난 첫 만남 때의 미약 같았던 그 순간을 오매불망 갈망하며, 연이어 편지를 보냈으니까, 곧 이어 보낸 편지는 더욱 가관이었다.

사랑하는 이에게

당신 생각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당신 모습 아니! 당신 목소리라도 듣고파

멀른 새날이 밤길 조바심합니다.

아! 당신 가슴속도 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88년. 8월 17일 22시 05분 순욱.

후신: 오늘 당신의 가라앉은 목소리에,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요.

그러나 아쉽게도 이 남자는 나의 이런 정성 어린 편지에 답장이란 걸 한번도 해주지 않았다. 그 당시 나는 넘쳐나는 나의 사랑을 그가 알아주기만 하면 좋겠다 싶어 메아리 없는 편지를 계속 썼다. 글로라도 토해내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러다 한 번은 그 남자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제가 편지 보냈는데 그것도 여러 번...”

“어, 받았어요.”

“그게 다 예요?”

“히참... 우리 사이에 그냥 척 보면 아는 거지. 뭘 그걸 말로 해야 않니까?”

그렇게 우리는 묵묵히 사랑을 키워나갔고, 나는 이 남자에게 정말 어렵사리 프러포즈를 받았다. 결혼하기 며칠 전, 나는 남이 안 하는 별난 짓을 했다. 우리의 결혼 청첩장을 신랑이 될 이 남자에게 보낸 것이다! 나의 결혼식에 초대한다는 사랑의 시와 함께! 유난스럽긴

하지만 이 얼마나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인가!

<사랑하는 이, 당신을 초대합니다. 당신께로 향한 나의 크나큰 사랑을 당신은 느끼십니까? 이제 며칠 남지 않은 11월 12일! 나의 생의 지침을 바꾸어 놓을, 이 역사적인(?) 날에 당신만은 꼭 초대하고 싶습니다. 2시 백악관 예식장 ‘하얀실’로 와 주시겠어요? 행복을 한아름 안고...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사랑하는 당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88년 11월 1일 - 당신의 마음 모두를 가지고 싶어 하는 순옥 올림>

나를 제 1순위로 보호해주고 지지해줄 영원한 내 편이 생겼다면 그 얼마나 든든해하고 행복해했던가! 이 편지를 쓸 때의 내 분홍빛 모습이 그려지며 얼굴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88년 11월 12일 드디어 우린 결혼했다. 40대 쪽으로 더 다가간 나이가 되어 가는 데도 나의 열정은 식을 줄을 몰랐고, 사랑 시는 결혼 후에도 계속됐다.

어쩌면 좋을까요?

당신이 현관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보고 싶은 마음이 이는 이 마음을 어쩌면 좋을까요?

베란다에 서서 떨어지는 당신에게 손을 흔드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귀가가 기다려지는 이 마음을 어쩌면 좋을까요?

텅 빈 아파트에서 당신을 생각하노라면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공연한 안타까움에 시달리는

이 마음을 어쩌면 좋을까요?

1990년 1월 18일 목요일

나의 주치의의 순동현 박사님의 훌륭한 처방을 기다리며

애정결핍증에 걸린 중환자 순옥

노래 하나 추억 하나

갯마을 시골
밤에 울려 퍼지는
'푸른 시골 사랑'

구남식 |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시골 사는 억척스런 농부 아줌마입니다. 작년에 우리 동네 문화원에 기타교실이 있다 해서 한번 배워 보기로 마음먹었는데 지금까지 배우고 있어요. 기타교실에 가려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우스 일을 끝내 놓고 움직여야 마음이 편안하답니다.

잠깐 제 기타를 자랑하자면, 처음에는 집에 있던 기타가 부러진 거여서 뒤에다가 나무 덧대고 철사로 묶어서 3개월을 썼는데요. 선생님도 소리 나는 게 신기하다고, 어쩔 그리 솜씨가 좋으냐고 하셨습니다. 그 기타로 코드도 외우고 연습도 많이 했는데 우리 아들이 제 기타를 보더니 하나 사주더군요. 새 기타로 치니까 기타를 더 잘 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연주법을 열심히 가르쳐 주시면 그 시간에는 다 이해가 가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는데 집에 오는 길에 - 그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다 잊어버려요. 담 하나 아랫집 아우는 기초를 다 아는 상태여서 저보다 습득도 빠르고 훨씬 잘 치더



라고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기타교습소에서 선생님께 수업받고 평소에는 아우가 시간 있을 때마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8개월쯤 되니까 기타 주법, '고고, 칼립소, 쿵썽'까지 칩니다. 지금은 의자에 앉아서 신나게 '고고' 주법으로 <풀잎사랑>을 깃잎밭에서 치는데 흥도 나고, 일도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기타를 치게 된 건 아들 덕분도 있어요. 우리 아들은 몇 해 전 집밖으로도 안 나오려 하고, 많이 우울해 했습니다. 기타를 배우면서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얘기도 좀 전해드릴게요. 서른여덟 아들의 편지입니다.

<기타를 배우는 작은 무대의 베이스를 맡고 있는 학우입니다. 장소는 주부문화원이지요. 어르신도 있고, 형, 동생들도 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배우는데, 선생님은 옛날에 제 여자친구의 남자 후배를 닮았어요. 분위기는 뭔가 재즈를 좋아할 것 같고 근엄하고 멋있는 분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기타를 배웠는데요. 초급반 시절엔 어머니와 함께 배워 쿵썽쿵썽 실력이 많이 늘었고 함께 공연도 했어요.

비록 얼마 안 되는 인원이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함께했던 즐거운 작년 겨울 이야기입니다. 다과회를 우리끼리 했는데요. 꽃을 들고 온 동생 친구는 정신을 못 차리고 먹기 바빴고, 귀염둥이 동생들은 한 바탕 웃느라 정신없고, 다과회가 끝나고는 각 팀끼리 다양한 동요들을 불러 멋진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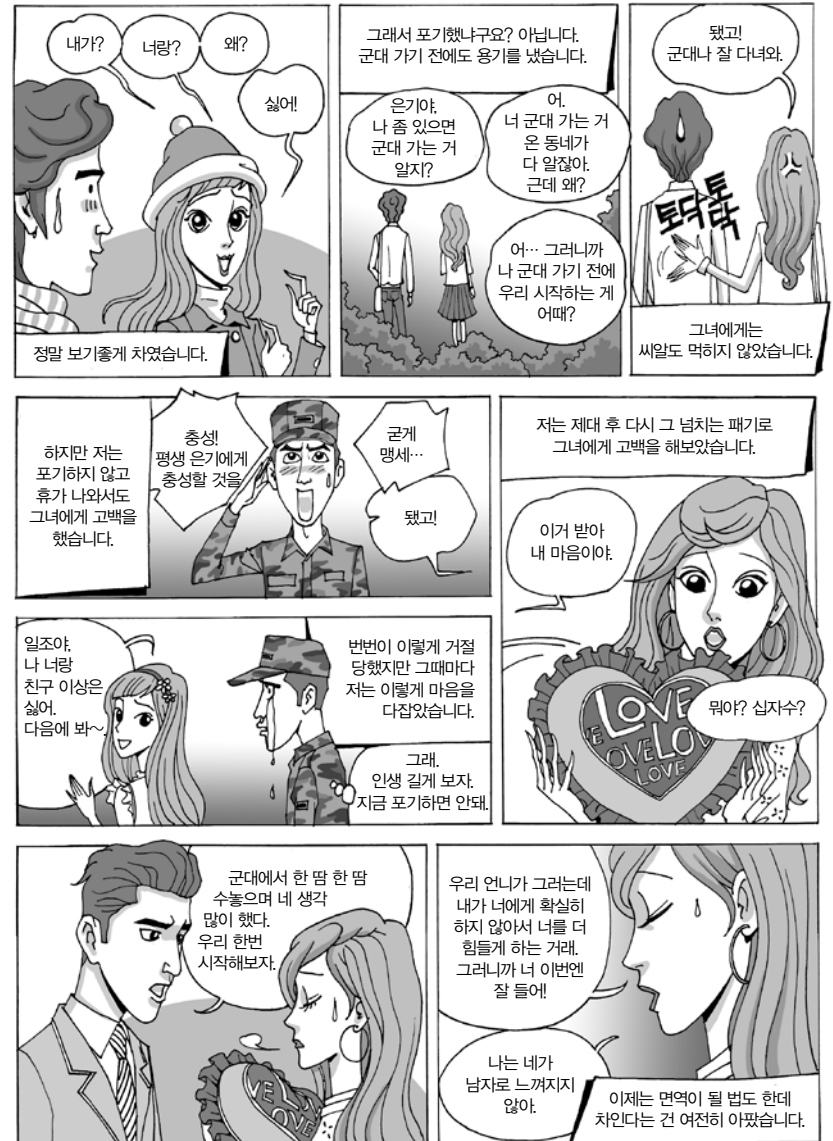
아직도 배우는 실력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음악을 사랑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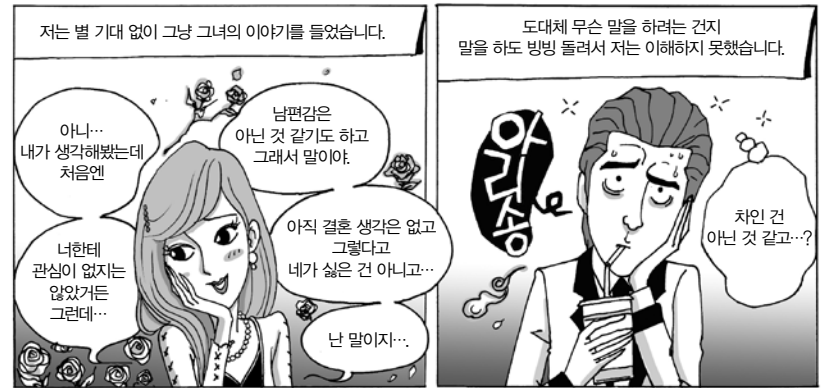
* 추신. 저의 사연과 아들 사연이 방송된다면 살기 힘든 지금 상황에서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이고 차여도 면역이 안 생겼요

그림 | 김곡, 우영미

※ 〈여성시대〉 가족 장일진(충청남도 서산시 부춘로) 씨의 사연을 각색한 만화입니다.





제가 둔한 탓이었겠죠?
저는 나가서 만세라도 부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10년 넘게 8번이나 차이면서도 좋아했었는데...
꿈에 그리던 만남이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랬던가요?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하기 전까지는 오래 걸렸는데 시작하고 나니까 결혼은 금방이더군요. 우린 10개월 만에 부부가 되었고 그리고 1주일만 있으면 우리 첫째가 태어납니다.





대형마트 나들이 유감

글 | 서천석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트위터 아이디 @suhcs)
일러스트 | 조신애

처음 대형마트가 생기던 시절 대형마트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나들이 장소가 되었다. 깔끔한 조명 아래 끝없이 쌓여 있는 매력적인 물건들은 현실로 튀어나온 하나의 판타지였다. '1+1 행사'처럼 엄마들의 시선을 잡아끄는 가격 경쟁력, 심심한 아빠들을 달래주는 시식 코너, 실제로 만져보고 고를 수 있는 장난감 코너는 대형마트를 놀이동산에 버금가는 가족 나들이 장소로 승격시켰다. 창문도 없고 시계도 없어 시간 감각을 잃게 하는 곳에서 아이들은 카트를 타고 달리면서 기대에 부풀었다. 이제 나갈 때는 내 손에 어떤 것이든 장난

감 박스가 쥐어질 거야. 아이들은 카트 창살을 손으로 문지르면서 "아빠 더 빨리"를 외쳐댔다.

대형마트의 인기는 이제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주말이면 온 가족이 나들이 온 모습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다. 대형마트는 집에서 떨어져 있어 운전을 해야 하고, 운전까지 하고 가니 많이 살 수밖에 없어 짐을 들 아빠가 필요하고, 부모가 함께 가야하니 어린 아이들만 집에 둘 수는 없는 터라 온 가족 출동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물건을 사러 오는 곳이지 절대 나들이 장소는 아니다. 비록 그곳에 푸드코트가 있어 이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고, 병원과 미용실, 심지어는 아이들 놀이방도 있어 윈스톱으로 다양한 일을 처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이들과 주말을 즐겁게 보낼 장소일 수는 없다. 아니 긴급적이면 아이들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대형마트이다. 대형마트의 사용설명서가 있다면 그곳에는 '되도록이면 아이는 데리고 오지 않도록 하십시오'라는 경고 문구를 넣도록 권하고 싶다.

대형마트는 아이들에게 물건에 대한 현실적 감각을 잃게 한다. 하나의 물건이 만들어지려면 수많은 사람의 노동이 필요하다. 또 물건을 사기 위해서도 부모의 힘든 노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이 앞에 엄청나게 쌓여 있어서 별로 값어치 있어 보이지도 않고 쓱 하고 카드로 긁으면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물건에서 아이는 노동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언젠든 갖다 쓰고, 또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소비의 대상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물건을 소중히 여기기를 기대한다면 그저 공자님 말씀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다. 대형마트에서 부모는 어쩔 수 없이 과소비와 충동구매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준다. 대형마트들은 눈을 끌 수 있는

효과적인 진열 기법만으로도 평균 30%의 매출 증대를 이룬다고 한다. 그 말을 소비자 입장에서 뒤집어 보면 진열의 기법 때문에 우리는 꼭 사지 않아도 되는 물건을 30% 더 사고 있는 셈이다. 싸게 사는 듯싶어 카트에 물건을 던져 넣지만 알고 보면 사지 않았어도 버릴 수 있었던 물건이 적지 않고 한꺼번에 많이 사둔 터라 아끼지 않고 헤프게 써버리는 경우도 많다. 산더미같이 물건을 카트에 쌓아 올리고 만족스러운 웃음을 짓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아이는 어른이 갖는 힘을 과소비, 대량소비와 동일시한다. '나도 얼른 어른이 되어 이렇게 잔뜩 사는 사람이 될 거야.'

대형마트의 문제점 중 부모에게 가장 친숙한 것은 장난감 구입을 두고 벌이는 아이와의 투쟁이다. 아이로선 도저히 부모를 이해할 수 없다. 진료실에서 쉽게 듣는 아이들의 표현을 빌어보자. “엄마는 치사해요. 자기 필요한 것은 다 사면서 내 건 하나만,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걸로 사주고 생색내요.” 이 물건들은 엄마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란 엄마의 설득은 통하지 않는다. 아이들이란 필요한 것에 관심이 없다. 갖고 싶은 것, 내 손으로 쥐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만 내 것이다. 나머지는 그냥 엄마가 필요해서 사는 것이다.

대형마트의 물건 홍수 속에서 아이들은 판단의 준거를 잃는다. 제법 좋은 장난감을 사주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저기 더 좋은 장난감을 눈으로 봤기 때문이다. 엄마는 기껏해야 나한테 중간 정도 좋은 물건을 사주니까 아마 날 중간 정도만 사랑하는 거야. 마침 그때 다른 아이의 부모가 더 좋은 것으로 사주는 것을 보더라도 한다면 아이의 확신은 더욱 굳어진다. 우리 엄마는 나를 주워온 것일까? 엄마들은 이렇게 하소연한다. 애가 가진 것도 좋은 것인데 만족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만족은 상대적이다. 우리 회사가 다른 회

사보다 급여가 높더라도 옆의 직원이 급여가 올라가는데 자신의 급여는 그대로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어른도 못하면서 아이에게 안분지족(安分知足)의 경지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런 상황이니 감정 조절을 못하는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대형마트 나들이가 만만치 않다. 대형마트에 가면 꼭 보는 장면 중 하나가 아이를 야단치는 부모의 모습이다. 바닥을 걸레질하며 뒹구는 아이도 볼 수 있고 가끔은 아이의 등짝을 후려치는 폭력의 현장도 관찰된다. 아이에게 비싼 물건을 안겼다고 엄마에게 잔소리 듣는 아빠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되고 다신 널 데리고 오면 내가 엄마가 아니라 식의 협박도 드물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이 모두 대형마트에 오지 않았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자. 왜 대형마트를 찾는가? 꼭 찾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혹시 동네의 슈퍼마켓이나 작은 가게에서 조금씩 사서 쓰면 안 될까? 기름 값 빼고 충동구매를 빼도 대형마트가 정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일까? 조금 불편하지만 아이와 시장을 나들이하며 물건을 고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일까?

분명 어쩔 수 없이 대형마트를 이용해야 하는 가족들도 있다. 부부 모두 직장을 마치는 시간이 아주 늦다면 동네의 가까운 슈퍼나 시장을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시간이 나는 주말에 앞으로 언제 또 올 시간이 될지 몰라서 물건을 대량 비축해야 한다면 대형마트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대형마트는 적절한 나들이 장소는 아니다. 만약 물건을 사야 한다면 물건만 사고 얼른 돌아오자. 분명한 것은 그곳이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적절한 장소는 아니라는 점이다.**

꽃그늘 아래에서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봄마다 꽃구경하고 싶어 안달이었다. 뉴스 또는 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산수유, 매화, 벚꽃, 동백, 개나리, 진달래, 철쭉, 라일락 등 북상하는 꽃 소식을 보며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실컷 여행하고 싶다고 마음을 다지던 중이었다.

그런데 올해 드디어 꽃구경 복이 제대로 터졌다. 일단은 옥천군 청산면으로 나들이를 떠났다. 서울, 마산, 세종시 등지에서 떠나 옥천역 주차장에서 친지들을 만나기로 했다. 깨끗하고 정갈한 한식으로 점심을 사먹고 정지용 시인의 생가를 둘러보고 삼방리에서 한의원 하는 친구네 집에서 산책도 하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집 짓고 사는 것도 최고의 복이라며 부러워했다.

몇몇은 화전놀이할 쭉과 진달래를 따라 나갔고 그새 집주인은 찹쌀 빵아 놓은 걸로 익반죽을 하며 프라이팬을 두 개 준비해 두 팀으로 나눴다. 달구어진 팬에 기름 두르고 지름 5~6cm 가량으로 찹쌀 반죽을 도톰하니 펴서 지지고 한 면이 익으면 뒤집어서 다른 면이 익기를 잠시 기다리다 진달래꽃 뒷면의 뾰족한 꽃씨방 근처를 살며시 꽃듯이 놓는다. 모양새가 점점 정갈하니,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달인이 되어갔다. 서로 너무 예쁘다며, 사진을 찍고 감탄을 쏟아냈다. 쪽으로 진달래 양 옆에 가지를 치듯 장식을 하니 진달래꽃이 더 살아났다.

친구는 마룻바닥을 전자파가 없는 걸로 깔았다고, 따뜻하니 덮혀 놓아서 화전 배터지게 먹고 각자 편한 자세로 마루에 누워, 선배의

협찬인 얼굴 껍을 뒤집어쓰고 삼십사여 분 동안 우리는 낮잠을 잤다. 공기 달고, 따스한 마룻바닥에 뱃속에 진달래 화전과 딸기화채가 가득하니 우리가 인생에서 무얼 더 바라겠는가! 4월 11일 올 봄 화전놀이의 정점은 달고도 깊고 고요한 낮잠시간이었다.

그 다음 주 쉬는 날 아침, 속초 사는 친구네 집으로 향했다. 강원도는 꽃 소식이 늦어 지금 벚꽃이 터지기 시작이라면서 설악동 입구로 우리를 안내했고, 어린 뱃나무 그늘 아래서 사진도 찍고 벚꽃 구경 복이 터졌다고 즐거워했다. 그 동네에 섭국 파는 집 있다기에 맛나게 먹고 처음 보는 오징어 식혜, 누룽지, 반건 오징어를 선물로 받았다. 집으로 돌아와 차 마시는데 자기 꽃밭에서 허브 잎을 따다 끓는 물을 부으니 세상 어느 명품 차보다 맛이 그윽하니 깊었다.

윗집 구경하러 가자기에 올라가니 정말 장식이 생략된 멋진 집이 있었다. 넓은 뜰, 본채, 사랑채, 맷돌, 툇마루도 있는 현대식 건축. 마구 뛰어다니는 강아지들. 그 댁 마루에 앉아 차 마시며 보는 풍광도 일품이었지만 나는 그 댁 마당에 엮은 부뚜막과 두 개의 가마솥이 부러웠다. 손재주 많은 아내와 화진포에서 '보건의'로 군복무 마치고는 속초에 자리 잡은 의사선생님. 남들 사는 거 보는 일도 여간 재미진 일이 아니다. 공기가 달다는 것, 눈길 닿는 곳에 고층 건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저 이웃의 단층집이 보인다는 게 마음을 이렇게 편히 해줄지는 몰랐었다.

나 역시 서울 떠나 살겠다면서 계속 일하고, 일하는 상황이 꼼짝없이 계셨거라 하는 입장이어서 더 들썩이고 이리도 떠나고 싶은가보다.

〈엄마가 딸에게〉라는 신곡이 발표되었다. 5월 13일 수요일~5월 24일 일요일까지, 대학로에서 소극장 콘서트도 연다. 15년 넘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극장이란 공간으로 다시 돌아간다.

어머니 잘 계시지요?



강석우 | 여성시대 진행자

어머니,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한국에서 월드컵이 열렸던 그해 세상을 떠나셨으니 벌써 13년이 되었군요. 이미 숨을 거둔 어머니와 둘이 119차에 타고 가면서 어린 아이 마냥 엉엉 울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적지 않은 시간이 흘러 버렸군요.

어머니 잘 계시지요? 온화한 어머니 얼굴이 밍고 싶은데 꿈에서도 뵈 수가 없군요. 지난 달 상훈엄마 세상 떠날 때 꿈에서 뵈려나 했는데 엉뚱하게 등산가 박영석 대장이 꿈에 나타나 편안한 표정으로 웃더니 결국 어머니는 못 뵈었습니다. 둘째 동생인 상훈엄마를 위해서 최상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고통이 있어도 이승에 있는 게 좋은지, 고통 없는 그곳으로 간 게 좋은 건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 곁으로 기왕에 간 비에야 고통이 없었음으로 감사하다 하겠습니다.

말기 암 환자가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 간 후 병실이 없어서 휠체어에 앉아 밤을 보냈다는 상훈아빠의 전화를 받고는 방송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가 여기 저기 애걸복걸하여 겨우 병실을 구해 누인 적도 있고요.

아주 아프기 전인 작년에는 첫째 동생 선웅엄마와 둘째 동생 상훈

엄마 그리고 우리 부부가 부산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는데 그때 우리는 이별 여행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각자 했던 것 같아요. 좋은 바람 쐬고 맛있는 식사하고 해운대 모래를 밟았던 기억이 나는군요. 어머니도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부산의 유명한 북국과 언양볼고기를 좋아 하시잖아요. 고집스러우리만치 자존심이 센, 상훈엄마는 세상 떠나기 얼마 전 편안한 표정으로 웃으며 “오빠, 언니~” 하며 우리를 부르더니 참 좋다고, 이렇게 쉬운데 왜 그동안 잘 부르지 못했나 하는데 울음을 참을 수 없어 집으로 오던 차 안에서 우리 부부가 소리 내어 우는 모습 보셨지요?

왜 진즉에 서로 가슴 저미게 사랑해 주지 못했을까요. 부활절 주일 아침 8시경 세상 떠났다는 최 서방의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 장례일정에 들어갔는데 아들 상훈이, 영훈이가 의연하게 잘 지켜주어서 그 모습이 얼마나 대견했는지요. 우리 집 첫 조카여서 엄청 큰 사랑을 받던 상훈이가 의젓하게 잘 컸습니다. 문상객의 대부분은 상훈이 친구들이었고 그 다음에는 영훈이 친구들이어서 나름대로 세상 잘살아온 그 녀석들 때문에 상훈엄마 외롭지 않게 떠나보낼 수 있었고요. 상훈엄마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시집 간 여동생들은 사실 출가외인인데도 왜 이리 떨쳐내지 못하고 붙잡고 가는지 어머니는 아시지요?

어머니 세상 떠난 후 불효했던 일만 떠올라 이렇게라도 해서 용서 받고 싶은 제 마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들 아버지가 있긴 하지만 영훈이 대학 마칠 때까지 약속한대로 지킬 겁니다. 상훈이 취직할 때까지 해준다고 했던 약속 지킬 겁니다.

어머니, 상훈엄마 위로 많이 해주세요. 많이 아팠거든요. 환하게 웃는 어머니 모습이 그리네요.

융합하는 인문학의 재미

《생각의 융합》

글 | 한창완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역사 공부를 잘하려면 재미있는 이야기로 연결시켜 기억하라고 한다. 유럽의 역사는 종교의 전쟁이며, 가문과 집안의 다툼이었고, 매번 그 중심에는 여성이 있었다. 서양의 대표적 고전 《일리아스》와 《오딧세이아》 또한 그런 이야기였고, 근현대사의 흐름 또한 역사의 순환과 반복이라는 모멘텀을 항상 보여준다. 《생각의 융합》의 저자 김경집 교수는 인문학적 상상력이 세계사라는 인간의 흐름 속에 어떤 주제와 등장인물로 연결되는지를 파격적인 퍼즐 맞추기로 반증한다. 《생각의 융합》은 그래서 거대한 인류사의 주제를 미니시리즈 드라마로 연출하며 세계사의 인물들을 공동주연으로 등장시킨다. 그리고 저자의 상상력으로 전혀 만나지 않았던 시간들을 공통된 생각의 공간으로 융합시킨다. 그래서 더 흥

미롭고 이해가 수월하다.

콜럼버스와 이순신이 임진왜란에서 조총으로 만난다. 코페르니쿠스와 백남준이 변화의 혁명가로 도플갱어가 된다. 허딩크와 램브란트가 시민계급의 자유로움에서 혁신하고, 나이팅게일과 코코 샤넬이 여성해방이라는 주제로 세계사 속에 함께한다. 인문학의 상상력은 세계사 속의 인물들을 하나의 주제 여행에서 공동주연으로 부상시킨다. 김경집 교수는 흥미로운 세계사의 퍼즐 맞추기를 통해 우리의 현실이 오랜 역사의 만남과 혼돈 속에서 유사한 인물들의 열정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역사에 질문하면 이야기와 합리성을 찾을 수 있다는 저자의 일성은 그래서 인문학의 존재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콜럼버스와 이순신이 만난다. 가능하지 않다. 콜럼버스의 대항해는 1492년, 이순신 장군이 조선을 구한 임진왜란은 1592년이다. 100년의 시간과 유럽과 동아시아라는 공간은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다. 하지만 저자의 퍼즐에서는 맞춰진다. 콜럼버스의 대항해를 통해 유럽은 아메리카대륙을 만나게 되었고, 그 공간에 있던 은이라는 광물은 결국 유럽과 아시아의 무역을 가능하게 했다. 유럽은 아메리카에서 얻은 은을 통해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문명을 사들였고, 유럽의 전쟁을 통해 진화한 무기는 중국과 일본으로 전해진다. 결국 콜럼버스의 대항해는 유럽과 동아시아의 공간을 접혀진 입체적 공간의 맞물림처럼 하나의 문화로 근접시켰고, 조선보다 먼저 그런 문화를 접한 일본의 조총은 임진왜란의 새로운 분기점을 만들게 된다.

코페르니쿠스는 백남준과 만나는 데, 모두 과학과 예술의 혁명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능한 상상력을 검증해낸 두 명의 혁명가는 그래서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이 저자의 설득이다. 에밀 졸라의 집요한 정의 찾기는 드레퓌스 사건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김지하의 시대적 오류는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을 지식인의 책무로부터 분리시켜 버렸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지식인이 시대를 읽지 못하고 자신만의 패러다임에서 편협해질 때 정의는 외롭다고 저자는 시대를 관통하며 안타까워한다.

인문학적 상상력은 요즘 인기리에 방송되는 TV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를 떠오르게 한다. 한정된 냉장고의 요리 재료만으로도 다양한 소재와 맛의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세계사의 순간순간이 다양한 주제와 임계점으로 평가되고 연계되는 것이 그것과 다르지 않다.

김경집 | 문학동네 | 2015년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당신**을
여성시대로
초대합니다”

여성시대
양희은 · 강석우입니다

MBC 라디오
매일 아침 9시 5분~11시



나도 모르게 쌓이는 노후준비자금!
「IBK평생설계저금통」 서비스로 준비하세요!



IBK평생설계저금통

IBK평생설계저금통 서비스란?
신용/체크카드 승인 시 특정금액(정액/잔돈)이 카드 결제계좌에서 선택 적금이나 펀드로 적립되는 서비스

IBK기업은행 개인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하고(당행 결제계좌에 한함) 아래 상품 중 1개 이상 가입 고객

- ① IBK평생든든자유적금 ② 펀드* * 자유적립식 임의식 펀드(MMF 제외)만 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5-008(2015.3.20) [심사]제2015-008
* 이 예금(예외사외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보호 전에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주 소외) 대상 금융회사의 취급과 소정의 이익을 합하여 인위적 "리스크 조정자산"에 대한 위험을 초과하는 내외 지 금(예) 보호하지 않습니다. * 개별 신청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가맹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99-2000)를 이용하시거나, 112 IBK콜센터,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상담이 있을 때에는 IBK(112)콜센터의 상담요청이기에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상담을 받으실 때 신분증과 본인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IBK기업은행: ☎99-400-4000, IBK(112)콜센터: ☎99-2000, e-mail: ibk@ibk.co.kr